



충남형 양극화 해법... '동일노동 동일임금' 제시

도, 2030년까지 8조 투입
임금 보장 표준임금체계 구축
청년에 '청년사회상속제' 도입
도내 기관 40% 지역인재 채용
"포용성장위원회 설치로
불평등 해소 사회통합 실현"

충남도는 고용 불균형 완화를 위해 2030년까지 도내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을 최대 40%까지 늘리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도는 지난 23일 도청 문예회관에서 '포용사회로의 힘찬 전진, 더 행복한 충남 양극화 대책 도민 보고회'를 열고 충남형 양극화 해결 비전을 제시했다.

도는 2030년까지 8조 1121억 원을 투입해 양극화 해결을 위한 3대 목표, 6대 추진전략, 74개 실행과제를 추진한다. 앞으로 74개 실행과제를 살펴보면 임금격차 완화,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해 도와 기업, 노동자, 민간단체가 함께하는 '충남형 지역사회 협약'도 맺을 계획이다.

특히 임금수준과 근로조건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이 보장될 수 있도록 표준임금체계를 도입한다.

충남 출신 청년에게 기초자산을 지원하는 '청년사회상속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뿐만 아니라 독거노인의 사회적 고

립 예방 및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충남형 독거노인 공유주거 모델'을 개발한다. 일자리지원 기반 강화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 목표제'를 추진한다. 이날 도와 충남개발공사, 충남연구원 등 22개 공공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은 협약식을 갖고, 2030년까지 최대 40%를 지역인재로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도내 공공기관부터 시범추진한 후 단계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12개 핵심과제를 포함한 74개 실행과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가칭)포용성장위원회를 구성하고 유관단체 및 기관 간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날 양승조 지사는 "상위 1%가 소득의 12.2%를 차지하며, 상위 10%의 소득집중도가 43.3%에 달하고 있다"며 "양극화와 불평등을 극복하고, 함께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며, 통합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미래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도는 도민 누구나가 동등한 삶의 기회 속에서 자유롭게 꿈을 펼치며,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충남의 꿈을 그리고 우리 비전을 함께 다짐하는 충남을 향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는 양극화 문제와 극복 노력을 도민이 쉽게 이해하고 양극화 해소 가치를 공감하는 연극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경제정책과 041-635-3319

(관련기사 3·10면)



포용사회로의 힘찬 전진 지난 23일 충남도청 문예회관에서 열린 '충남 양극화 대책 도민보고회'에서 양극화 대응 노력과 극복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도민에게 알렸다. 사진은 양극화 걱정 없는 세상을 꿈꾸며 노래를 부르는 모습. /사진 맹철영

첫 공공산후조리원 내년 문 연다

홍성의료원 기존 산후조리원 활용
산모실 10실 규모·내년 12월 개원

충남 첫 공공산후조리원이 내년 말 홍성에서 문을 연다.

도에 따르면 홍성의료원 내 기존 산후조리원을 리모델링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한다.

내년 12월 개원이 목표이다.

도는 열악한 출산환경을 개선하고, 산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 및 출산장려 환경 조성 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추진해왔다.

공공산후조리원은 홍성의료원 1층

연면적 580㎡에 산모실 10실 규모로, 의사 2명과 간호사 5명 등 총 12명의 인력이 투입된다.

건축비 8억 원과 연간 운영비 6억 원은 홍성군과 절반씩 부담키로 했다.

공공산후조리원 개원시 양질의 모자 보건 서비스 제공, 산모 중심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다자녀 이용료 감면을 통한 경제적 부담 완화, 임신부 불편 해소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내년 12월 홍성군 공공산후조리원 개원 후 두 번째 공공산후조리원 추가 설립 추진에 나설 방침이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4

알림

코로나19로 인해 도정신문 8월 5일자는 쉽니다.

도정신문은 코로나19로 인한 2주간 생활 속 거리두기 실천을 위해 8월 5일자는 쉽니다. 도정신문은 8월 5일자를 대신하여 12월 25일자로 조정, 발행하오니 도민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 발행일은 8월 15일입니다. 더욱 알찬 도정소식 전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도정신문 제작팀 일동

벨기에 유미코아, 천안에 100억 R&D센터

천안외투자지역 1만 9296㎡부지에 3000만 달러 투자 R&D센터 신축 전기·수소차 관련 연구개발 집중

충남도가 이차전지 양극재 생산 글로벌 우량 외국인투자기업인 벨기에 유미코아사의 연구·개발(R&D)센터를 유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도청에서 양승조 지사와 임동준 한국 유미코아 회장, 박상돈 천안시장 등은 유미코아 R&D센터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유미코아는 천안외국인투자지역 1만 9296㎡(약 5850평)부지에 3000만 달러(약 360억원)를 투자, R&D센터를 신축한다.

천안에 새로 짓는 R&D센터는 유미코아사가 아시아에 투자하고, 진출한 R&D센터 가운데 최대 규모이다.

유미코아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사를 둔 이차전지 양극재 등을 생산하는 소재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으로, 양극재 생산 선두업체 중 하나로 알려졌다.

지난해 약 4조 50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한국, 미국, 중국, 독일 등 14개국에 진출, 직원 수가 1만 1100명에 달한다.

한국에는 1999년 법인을 설립, 천안외국인투자지역 등 천안에만 3개의 공장(약 14만 8760㎡ 규모)을 건설했다. 이곳에는 약 95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이번 유미코아의 R&D센터 건립 결정은 최근 가파르게 상승하는 전기차와 수소차 수요를 예측해 따라 연구·개발 활동을 가속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충남테크노파크 이차전지 기술센터가 보유중인 장비 및 시설을 공동 활용하는 등 이차전지 연구개발을 위한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양승조 지사는 이날 협약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미코아의 R&D 투자결정을 환영한다. 이번 R&D 투자로 보다 많은 고급 인력들이 근무하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며 "지역경제 성장을 이끄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입지과 041-635-3384

전국최초 석탄화력 백지화, 태양광 세웠다

도,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준공
연간 1만 3000MWh 전기 생산
보령 1·2호기는 연내 폐쇄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첫걸음

충남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가 준공된 가운데 친환경 에너지 전환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 최초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한 것이다.

도에 따르면 지난 23일 당진시 석문면 일원에서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준공식'이 열렸다.

이날 준공식에는 양승조 지사를 비롯한 김명선 도의회 의장, 어기구 국회의원, 김홍장 당진시장, 윤병석 SK가스 사장, 박일준 한국동서발전 사장 등이 참석했다.

당진에코태양광발전소는 당초 석탄화력발전소로 계획됐으나, 도와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 전경

당진시, 지역사회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 친환경인 태양광발전소로 전환됐다.

부지 면적 30만 3965㎡인 발전소에는 태양광 98MW, ESS 24.6MWh 설비가 설치돼 연간 1만 3000MWh의 전기를 생산한다. 이는 약 3500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으로, 연간 5756톤의 이산화탄소 절감 효과도 거둘 수 있다.

특히 충남은 국내 석탄화력 60기 중 절반인 30기가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

해가 심각하다.

대기오염물질 배출결과는 전국 1위, 전국 배출량 27만 7700톤 중 27%인 5만 8700톤을 배출하고 있다.

이에 도는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량을 최대 20% 감축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40% 확대한다.

또한 연내에 보령 1·2호기 조기 폐쇄에 이어 2026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14기를 단계적으로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양 지사는 이 자리에서 "당초 석탄화력발전이었던 이곳이 오늘 태양광발전소로 거듭나 준공식을 하게 됐다"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대한민국 최초 사례이자, '당진에코 태양광발전소'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에너지과 041-635-3461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 '상생 모델' 만든다

수도권~충청권~호남권 연결
평택~부여 구간 2024년 개통

도-지역건설업체 상생 협약
지역업체 참여, 인력 고용 등

충남도가 수도권에서 충청권을 거쳐 호남권을 잇는 서부내륙고속도로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과 상호협력 협약을 맺었다.

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세종시에 위치한 서부내륙고속도로사업단에서 양승조 충남지사는 손우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정태화 서부내륙고속도로

대표이사, 한성희 포스코건설 대표이사, 서부내륙 민자 고속도로 사업, 지역 건설업체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은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서 시작해 충남 아산·예산·홍성·부여, 전북 완주를 거쳐 익산시 왕궁면에 닿는 총연장 1377km의 민자 사업이다.

총 사업비 2조 6694억 원(보상비 5066억 원 포함) 상당의 대규모 사업이다.

1단계 평택~부여(94.3km) 구간은 오는 2024년 개통될 예정이며, 2단계 부여~익산(434km) 구간도 2029년 공사에 들어가 2034년 완공될 계획에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도와 관계 기관은 지역민의 편의 및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안을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건설업 활성화 및 기술 능력 향상을 위해 도내 업체 공사 참여를 돕고, 건설장비, 생산 자재 활용과 인력 고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양승조 지사는 이 자리에서 "서부내륙고속도로는 서해안과 경부고속도로의 교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연결, 국토균형의 새로운 성장 발판이 될 것"이라며 "고용창출은 물론, 음식·숙박·소매·임대업 등 건설공사로 인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양 지사는 "협약이 발주청과 지자체, 시행사 간 실질적인 지원을 약속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 인력, 장비, 업체의 지역 참여 또한 많은 확대에 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양 지사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신창, 동홍성, 은산IC 설치와 부여 분기점 개선, 일부 지역의 노선 변경, 구조물 설치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하면서 "무엇보다 노선 주변 주민들의 생활보장권을 고려해 달라. 모든 문제를 주민과 함께 해결하는 상생 대표 모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4674



도정만평

설인호



천수평 전투, 연이어 빛나는 승전

청산리전투 100주년
김좌진 장군 서거 90주년 기회
⑩일본군 기마부대를

전멸시킨 천수평 전투

천수평 일본군 주둔 정보 입수
김좌진, 날 밝기 전 기습공격
기마부대 말부터 집중 공격
승전 후 다시 어랑촌으로 이동

김좌진은 청산리대첩의 첫 전투인 백운평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 화룡현 갑산촌(甲山村)으로 이동했다. 일본군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였다. 도주하는 일본군을 추격해 궤멸시킬 수도 있었다. 그러나 대규모 일본군 지원부대가 도착하면 전세가 불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갑산촌은 백운평에서 100여 리 떨어진 곳이었다. 대한군정서군은 전투를 하느라 온종일 굶었음에도 나무열매로 허기를 때우며 10월 22일 오전 2시경 갑산촌에 도착했다. 갑산촌의 한인동포들은 식사와 함께 30여 리 떨어진 천수평에 일본군 기마부대가 주둔한다는 정보를 제공했다.

김좌진은 참모들과 작전회의를 열었다. 일본군이 인근에 주둔하고 있어 갑산촌이 안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작전회의 결과는 선제공격이었다. 치열한 전투 이후 100여 리나 행군한 상황에서 휴식도 없이 일본군을 공격하는 것은

무리였다. 그러나 김좌진은 날이 밝기 전에 일본군을 기습공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 여겼다.

대한군정서군은 또다시 30여 리를 이동해 22일 새벽 4시경 천수평 외곽지대에 도착했다. 일본군은 보조병력을 제외하고 말을 매어 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대한군정서군은 퇴로를 차단하고 일본군을 포위하고 새벽 5시 30분경 일제히 일본군을 공격했다. 일본군이 기마부대인 점을 생각해 말부터 집중해 공격했다. 잠들어 있던 일본군은 허둥대며 무기와 말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대한군정서군의 공격으로 일본군은 중대장을 비롯해 120여 명(추정)이 전멸했다. 대한군정서군은 전사 2명, 경상 17명 정도였다. 백운평 전투에 연이어 빛나는 승전이었다.

승전의 감격도 잠시, 김좌진은 또다시 화룡현 어랑촌(漁郎村)으로 이동해야 했다. 천수평전투에서 획득한 문서를 통해 일본군이 어랑촌에 집결해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기 때문이다. 어랑촌에는 보병·기마병·포병을 포함해 일본군 1,500여 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김좌진은 천수평전투와 같이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여겼다. 화력이 우세한 일본군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선제공격이 최선의 방법이였기 때문이다. 김좌진은 대한군정서군을 이끌고 청산리대첩의 최대의 승전지 어랑촌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이성우 충남대학교
충청문화연구소 연구원

'백제문화제' 제례 중심 축소 개최

코로나 사태로 대규모 행사 취소
일부 온라인·비대면으로 진행

백제문화제가 코로나19 여파에 따라 행사 규모를 축소 개최한다.

(재)백제문화제재단은 충남도, 공주시, 부여군 등과 협의한 결과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차원에서 제66회 백제문화제를 제례·불전 중심 온라인·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계속된 영향으로 공연과 전시, 체험행사 등 대규모 행사 프로그램을 취소하고, 삼층제, 웅진백제5대왕 추모제 등 제례 및 불전 행사는 비대면 운영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대표 프로그램인 웅진판타지아 등 일부 행사는 무관중 또는 거리두기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디어·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백제문화제재단은 무령왕의 생위강국 선포 1500주년을 기념하여 '2021대백제전'으로 개최하는 제67회 백제문화제 준비에 한층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백제문화제재단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제66회 백제문화제를 축소 개최하게 됐다"며 "65년 이어 내려온 백제문화제의 정신이 살아 숨쉬고, 고대 동아시아의 문화강국 백제의 위용과 풍요로움을 체험하는 시간 여행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백제문화제재단 041-635-6991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 첫 운영

인권 상담, 인권의식 설문조사 등

충청남도 인권센터는 지난 16일 서산 호수공원에서 센터 개소 이후 처음으로 '찾아가는 도민인권보호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소개하고, 인권보호관 제도

안내 및 인권 상담, 도민 인권의식 설문조사 등이 진행됐다.

도민인권보호관은 도민이 도 관할 기관이나 시설에서 인권 침해·차별 행위를 당한 경우 인권 침해 구제 신청을 하면 독립적으로 조사를 실시하며 인권침해 결정 시 심의 의결에 참여해 인권 침해 여부를 결정·권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인권 침해 상담·구제 신청은 도 누리집(<http://www.chungnam.go.kr>), 전자우편(cnrights@korea.kr), 전화(041-635-3614), 우편 및 방문(충남도청 본관 1층 125호 충청남도 인권센터)으로 가능하다.

한편 도 인권센터는 도민의 인권 보호·증진을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부터 개소·운영 중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614



청산리대첩 당시 독립군이 사용했던 무기

/출처 독립기념관



전국최초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전국반향’

글 쓰는 순서

- ① 행복키움수당(아기수당)
- ② 충남 3대 무상교육
- ③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
- ④ 탈석탄
(화력발전소 1·2호기 조기폐쇄)
- ⑤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
- ⑥ 역간척, 해양정원 조성
- ⑦ 해양바이오, 해양치유 등 해양新산업
- ⑧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
- ⑨ 디스플레이 혁신공정플랫폼 구축
- ⑩ 공유립 밀원수 조성
- ⑪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 ⑫ 여성권익보호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양극화 전담팀 등 충남도 관계자들이 양극화 대응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소상공인이 사회보험료 지원과 관련해 상담을 받고 있다.

충남이 최초인 선도사업

⑧ 4대 사회보험료 소상공인 지원

충남도는 더불어 잘 사는 충남을 만들기 위해 양극화 극복, 불평등 해소에 힘쓰고 있다. 도민안전보험 가입, 경제 취약계층 4대보험료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장애인 등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선제적 정책을 추진 중이다. 전국 최초로 실시한 충남형 양극화 극복 사업·정책은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키며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고 있다.

앞으로 포용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해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가 추진하는 양극화 대응전략 추진 배경 및 현황, 향후 계획 등을 들여다본다.

전국 최초 양극화 전담팀 신설

도는 양극화 위기 극복을 도정 핵심정책으로 삼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양극화 전담팀을 신설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비정규직, 여성, 장애, 다문화 등을 돕기 위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양극화 현상은 소득·고용·복지 등 여러 부문에 걸쳐 확산되고 있으며, 내수부진, 사회갈등 악화 등 경제·사

회적 문제가 심화되는 추세다. 더욱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소상공 매출 감소 등 양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경제성장 속 양극화가 심각한 가운데 저출산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도는 심화되는 양극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양극화 전담팀’을 신설했다. 정부의 포용 성장 기조에 부합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경제·복지·주거 분야 종합적·체계적 대응 전략 마련을 위해서다. ‘양극화 전담팀’은 지난 2019년 1월 신설된 이후 양극화 조사 및 원인 분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양극화 대책 TF 구성·운영,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양극화 대응 관련 사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부서별 양극화 대응 74개 정책과제를 발굴, 핵심과제 12개를 선정·추진 중이다.

“경제적 부담이 줄었습니다”

도는 노인·장애인 등 버스비 무료화 사업,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충남농어민수당 도입, 금융소외자 소액금융지원사업 등 선제적인 양극화 극복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중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은 대표 양극화 대응 선도모델 중 하나

도, 사회 양극화 극복 ‘앞장’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도민안전보험, 농어민수당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등

양극화 해결 선도정책 추진

전국 처음 양극화전담팀 신설

충남형 양극화 대응비전 선포

“충남도 지원 덕분에 경제적

부담이 줄어 감사합니다”

다. 도는 지난해부터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도내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펴고 있다. 도와 시군이 소상공인 사업주에게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 부담액 전부를 지원하는 것인데,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무엇보다 도와 시군,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올해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통해 7901개 사업장, 2만 1783명의 근로자에게 총 61억 3700만 원을 지원했다. 현재 2분기 사회보험료 지원 접수 중이며, 8월 1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천안에서 식당을 운영 중인 정모(50)씨는 “사업주는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매출실적과 상관없이 근로자에게 지원해야 하는 부분인데, 충남도가 추진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덕분에 도움이 되고 있다”며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 매출 감소가 큰 편인데 보험료 부담이 줄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식당 직원 중 50%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은 적용이 안 된다. 대상에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약자 중심 포용 성장 기반 마련

도는 지난 23일 충남 양극화대책 도민 보고회를 갖고, 충남형 양극화 대응비전을 선포했다. 양극화 대응 노력과 극복을 위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양극화 해소의지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더불어 잘 사는, 더 행복한 충남’이라는 비전을 마련하고, ▲소득 및 고용 불균형 완화 ▲취약계층 보호와 회복 ▲경제사회 포용성장 기반 강

화 등 3대 목표와 ▲임금보장과 근로여건 개선 ▲지역 중심 일자리 창출 ▲경제적 약자 지원 ▲사회 안전망 확대 ▲지역 선순환 경제 체계 구축 ▲공정한 기회보장과 공동체 형성 등 6개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동력도 강화한다.

우선 도는 지자체 최초로 사회적 합의 기구인 포용성장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경제 사회 전반의 양극화, 포용 성장에 대한 다각적 정책 발굴 및 기획하게 된다. 경제·노동단체, 소비자단체, 노사민정 위원, 사회단체, 국책연구기관, 도의원, 각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오는 2030년까지 총 8조 1000억 원을 투입해 74개 정책과제를 추진한다.

또한 사회적인 인식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충남형 양극화 대책 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양극화 해소는 성장과 분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과제”라며 “경제·사회적 격차와 갈등 해소를 위해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더불어 잘 사는 충남과 대한민국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김정원 jwkim87@korea.kr

혼자가 아닌, 함께 할 때

대한민국, 3대 위기를 말한다

② 동행

습기 가득한 장마철이다. 채칼에 밀려나는 무채 같은 빗줄기에 잠시 사유한다. 원주리 하늘나리 꽃창포 자주달개비 등 여름 야생화가 향기로운 7월. 바람을 꺼안고 내리는 은빛 빗살이 분주하다. 세상은 온통 코로나 19로 주눅이 들어 멈춰는데 자연은 이처럼 두려움 없이 계절을 밀고 지나간다.

비오는 날 엘리베이터가 없는 허름한 건물계단을 유모차 한 대가

함께 오르고 있다. 덩치 큰 동생을 태운 열 살 배기 형의 얼굴이 땀에 젖었다. 몇 층까지 가냐는 안타까운 질문에 5층에서 엄마가 기다린다고 말하는 형의 표정이 뿌듯한 표정이다. “우리 형 힘세죠?” 입에 사탕을 물고 있는 동생은 든든한 형의 뒷배가 자랑스러운 모양이다. 형은 형대로 동생은 동생대로 서로에게 힘이 돼 보이는 아름다운 형제의 동행이다.

개인이나 집단의 이기가 만연한 세상이지만 한 핏줄로 태어난 형제자매는 이렇듯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된다. 2007년 이후 우리나라 외동이 가정은 한 집 건너 한 집

으로 절반을 넘어섰다고 한다. 6.25 전쟁 이후 산아제한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다산은 사실상 불편한 진실이 돼버렸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물질보다 자손번창을 소망했다. 제 밥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고 한 집에 7남매 8남매는 보통이었다. 그 시절 언니오빠가 쓰던 헌 책과 몽당연필을 물려받아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였으며 그런 가난이 문제가 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경험을 통한 어른들의 조언이 통할 리 없다. 그저 만만치 않은 양육비가 문제이고 치솟는 집값이 문제인 것이다. 불안한 일자리도 문제고 결혼이 늦어져 노산으로 인한 노화도 문제가 된다. 이유는 또 있다. 자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기 싫다는 것이

다. 자신의 삶을 자식 키우는데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이유이다. 동생을 낳아 달라는 어린 자녀에게 동생 대신 강아지를 사주는 것이 요즘 우리 사회를 관류하는 보편적 현상이다.

그러나 인간은 독립불구의 불안정한 존재이다. 또한 겁이 많고 비겁한 존재이기도 해서 지지와 경쟁자 없이 홀로 서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러닝메이트와도 같은 형제자매 없이 홀로 자란 외동이는 사회성이 떨어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탄력을 얻는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최고의 완성은 함께할 때 태어난다.’고 했다. 사람들은 개인의 극적인 성공 스토리에 열광하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의 성공이 아니다. 한 스포츠 선수는 자신의 성공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의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뒤에서 말없이 지켜봐주는 것도 함께 치열하게 경쟁했던 사람들도 그 성공의 한 요소인 것이다.

잘한다잘한다 응원하고 틀린 말에도 네 말이 옳다며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 생각만으로도 든든하고 따뜻한安心(안심)이다. 형의 희생이 무모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제 금쪽같은 내 새끼한테 감하지 말고 형제자매의 인연을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아이의 인생에 있어 난타의 長燈(장등)으로 빛날 것이다.



민수영 시인, 칼럼니스트



도, 자동차부품산업 돌파구 모색

녹지공간 확보에 1142억 투입

국내 생산 최근 5년새 61만대 ↓
올해 26억 편성·차 부품기업 지원
시제품 제작·퇴직근로자 재취업 등

충남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자동차부품산업을 살리기 위해 신규시장 개척 등 지원에 나서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와 올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자동차 부품업체의 매출 감소율이 두 자릿수를 넘어섰다.

자동차 국내 생산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56만대에서 2016년 423만대, 2017년 411만대, 2018년 402만대, 지난해 395만대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사이 무려 61만대 생산이 줄었다.

국내 자동차브랜드 해외생산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 2016년 441만대에서 지난해 388만대로 53만대 생산이 줄어

부품업체의 매출부진, 경영자금 악화로 이어져 업계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도는 지난해 시제품 제작 지원 등 3건의 자체사업을 추진, 129개 기업에 32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도와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는 지난해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소재·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을 통해 6억 3000만 원을 투입, 20개 기업에 지원했다.

이에 따라 제품국산화 14건, 시장다변화 6건 및 특허출원 4건을 비롯하여 신규 연구·개발(R&D) 기획과제 19건의 성과를 창출했다.

도는 자동차부품 관련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해외바이어 발굴, 무역실무 지원 등 50개 기업(304건)에 10억 원을 지원했다.

그 결과 5건의 수출상담회, 4건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수출성과

151억 원, 신규고용 23명 등 수출 확대와 고용창출에도 기여했다.

이와 별개로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16억 원)을 통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을 막고, 거래 안전망을 확보했다.

올해 26억 원의 예산을 편성, 자동차 소재 부품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으로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10억원 ▲자동차산업 퇴직근로자 재취업 지원 11억원 ▲자동차용복합부품체계화지원사업 5억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자동차부품산업의 활력 제고 및 포스트 코로나19에 대응해 미래차 사업을 다양하게 발굴할 것”이라며 “자동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산업육성과 041-635-3931

생활주변숲, 도시숲 등 6개 사업
녹지조경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

충남도가 도내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생활주변숲 등 6개 사업에 1142억 원을 투입한다.

도는 도시열섬 등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생활권 녹색공간 확충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해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도내 생활권 도시림 면적을 늘리고, 그동안 조성한 녹색공간 관리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도는 향후 5년간 ▲생활주변숲 200개소 ▲도시숲 120개소 ▲명상숲 60

개소 ▲도시숲관리원 500명 ▲가로수 548km 조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숲·가로수 등 녹지공간은 일상 생활 속에서 친숙한 생활 녹지로, 지역민 산림복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실제 도시경관을 형성, 지역을 찾는 방문객에 지역 이미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도 관계자는 “더 행복한 삶의 숲 조성은 맑은 공기 생산, 미세먼지 저감 등 도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산림복지 공간이다”며 “도민의 건강과 행복 등 공익적인 관점에서 장기적 정책 추진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산림자원과 041-635-2574

도,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태풍 등 자연재해 피해 보상

충남도가 태풍 등 8개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과 홍수, 폭우, 강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하도록 보상하는 정책보험이다.

자연재난이 발생할 경우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재난지원금은 1300만원(주택 100㎡ 기준)에 불과하지만,

보험 가입 시 최대 90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험 가입은 보험 목적물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 재난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게릴라성 집중 호우로 인해 누구나 재산피해를 받을 수 있기에 풍수해보험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가입을 권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자연재난과 041-635-3256



온·오프라인 장학증서 수여식

(재)충남인재육성재단(이사장 양승조)은 지난 18일 재능기움 장학생을 비롯한 공모제 장학사업으로 선발된 장학생을 대상으로 ‘2020년도 상반기 장학증서 수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조 지사는 ‘위기 속 대한민국의 미래를 말하다’라는 주제로 특강을 가진 후 장학생들과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에 대해 공유하고 토론했다. 사진은 학생들이 ‘10년후 나의 모습’에 대해 발표하고 있는 모습.

/재)충청남도인재육성재단 041-635-9805

충남 지역 관광 상품 온라인 판매 ‘급증’

지난해 판매 1만 9251건

올해 시·군 8곳으로 확대

충남도가 여행객 유치를 위해 추진 중인 온라인 마케팅 사업이 성과를 보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 마케팅 사업을 통해 도가 판매한 상품 수는 1만 9251건으로 2018년 판매한 상품 수 4015건보다 1만 5236건 많은 규모다.

온라인 마케팅 사업은 시군 공모 사업으로 지(G)마켓 내 충남관광홍보관을 개설해 도내 관광지와 지역 축제, 숙박 등 관광 정보를 제공하고,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SNS)

을 통해 관광 상품을 홍보·판매하는 것이다.

2018년에는 보령·서산·부여·서천·홍성 등 5개 시·군이 참여해 홍보관 방문자 조회수 134만 건, 관광 상품 판매 수 4015건을 기록했다.

이에 도는 사업 참여 시·군을 확대하는 등 여행 상품 홍보 및 판매 실적 향상을 위해 힘썼다.

실제 지난해 홍보관 조회 수 274만 건(전년 대비 103.9%), 상품 판매 수 1만 9251건(“ 378%)으로 실적이 크게 늘었다.

가장 많이 팔린 상품은 여행상품(패키지) 1만 5455건이었고, 숙박시설 3796건, 농특산물 343건 등 순으로 나

타났다.

올해 도는 사업 대상 시·군을 확대해 총 8개 시·군의 온라인 마켓 홍보관 운영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온라인 보령머드축제, 논산 강경갯길축제·탐정호 출렁다리, 부여 백제문화, 서천 가을여행, 청양으로 떠나는 여름휴가, 홍성 청산리대첩 100주년 기념행사·홍주성 천년 여행길, 예산 예당호 음악분수, 태안 해변길·솔향길·대하여행 등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안전 여행을 위한 비대면(언택트) 관광 문화를 조성하고, 숨은 관광지 및 야영장·캠핑장 등을 발굴해 소개할 예정이다.

/관광진흥과 041-635-3886

더 많은 주민 참여로 삶의 질 향상

자치분권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

①주민참여의 중요성과 조건

지방 분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보다 주민과 유권자의 생활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 대한 주민의 자각이다.

주민 참여는 지역 지도자와 주민이 공동체와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우리 마을 살림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을 지닌다. 개인과 정치적 이해집단의 이익을 위한 참여는 아니라고 잘라 말할 수 있다.

주민 참여가 성과를 내려면 첫째, 참여 주민 가운데 의미심장한 헌신을 하는 분이 많아야 한다. 둘째,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지역적 지식을 받아들여야만 효과적인 해결책을 얻을 수 있다.

셋째, 다양한 배경을 지닌 시민들에 권한을 주고 통합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함께 일하면 할수록, 종종 공통점을 발견하고 서로 협력하고 결국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드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넷째,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의 지

역 네트워크 구성도 중요하다. 다섯째, 관심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 정기적이고 계속적 토의는 사람들이 문제가 너무 커지거나 통제 불가능해지기 전에 관심과 우려를 표명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공동체 조직과 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다.

협력하면 소통과 상호 이해가 증진되며, 지방 정부, 공동체 주민, 지도자, 조직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알게 되어 미래 갈등을 줄일 수 있다.

더 많은 주민 참여는, 더 나은 참여와 의사 결정, 더 효율적인 자원 분배, 갈등의 감소, 공동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낳을 수 있다. 하지만 공동체 주민들은 각양각색이다. 이런 주민들의 생각과 태도를 조각 퍼즐 맞추기처럼 잘 맞추어서 긍정적인 주민 참여의 경험으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의 발에 맞는 신발은 없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그렇지만 주민의 관심과 제안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침묵하고 상호 신뢰를 잃게 되어 빈곤해진다는 교훈도 새겨야 한다.

/이병희 공주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

“외국인 상담 통역 야간에도 이용하세요”

충남외국인콜센터 임시 야간 운영

충남도가 외국어 상담 통역이 필요한 외국인 및 도민을 위해 충남외국인주민통합지원콜센터(이하 콜센터)를 야간에도 임시 운영한다.

이번 임시 야간 운영은 그동안 근로 시간 등으로 주간에 상담이 어려웠던 이용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야간 운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최대 5개월 정도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 언어는 중국어·베트남어·태국어·캄보디아어·러시아어·몽골어·네팔어 등 7개이다.

상담 분야는 각종 생활 고충 및 노동, 출입국 및 체류, 금융 등이다.

도는 연내 야간 상담 언어를 확대해 인도네시아어·우즈베키스탄어·미얀마어·필리핀어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이번 운영을 통해 외국인의 야간

상담 수요를 분석하고, 향후 콜센터 정식 야간 운영 시 적정 운영시간 및 상담 인원 배치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운영을 위해 하반기 콜센터 야간 인력으로 상담사 7명을 충원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임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내년부터는 정식 야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4987



포스트 코로나 시대... 언택트·온라인 경제 본격 대응

도, 자문위 제2차 정기회의 개최
산업, 지역사회 대응방향 등 논의

충남도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변화를 선도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도는 지난 20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양승조 지사와 김용찬·이우성 행정·문화체육부지사, 자문위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자문위원회(자문위)' 제2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자문위는 무역 및 노동 관련 기관장, 의학·공학·관광 관련 교수, 중소기업 및 시민·사회 단체장 등 포스트 코로나19 대응 정책 방향을 제안할 수 있는 각계 전문가 35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 경제산업대책본부와 생활방역대책본부 등 포스트 코로

나19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

또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정책센터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연구개발(R&D) 혁신과 산업 대응 방향'을 주제로, 장봉석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커뮤니티 케어위원장이 '코로나19 이후 노인돌봄 및 지역사회 대응방안'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김현철 센터장은 비대면 경제 활성화, 공급망 재편, 산업 재편 등을 설명하며 "환경 변화에 대응 속도가 빠른 기업이 자율과 창의력을 바탕으로 앞에서 막걸 뛰고, 정부는 뒤에서 적극 밀어주는 민·관 협력의 '빅 푸시(Big PUSH)'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봉석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집단 돌봄의 문제점과 극복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유일한 대안은 스마트도시와 사회보장·사회복지의 구체적 결합"이라고 제안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경제·산업·



진지한 포스트 코로나 대응 회의 지난 20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포스트 코로나19 대응자문위원회' 제2차 정기회의 모습.

교육·문화 등 우리 사회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질서가 요구되고 있고,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경제와 산업 부문에서 변화의 폭이 더욱 크고 거대할 것"이라며 "새로운 흐름이 될 '언택트 경제', '온라인 경제', '플랫폼 경

제' 등 광범위한 변화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양 지사는 "경제·산업 분야에서 도가 보유한 자원 및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에 맞춰 우리 도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방문 판매, 소규모 집단 감염, 해외 유입 등 다양한 전파 경로와 향후 예상되는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컨트롤 타워 마련 등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25



국내 거주 외국인 부여 관광지 방문 충남도는 지난 18~19일 부여군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30명의 관광지 방문 및 농촌마을을 체험이 진행했다.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은 첫날인 18일 궁남지를 탐방하고, 부여 기와마을에서 숙박하며 연잎밥 만들기 등 농촌 문화를 체험했다. 19일에는 정림사지, 서동요 테마파크 등을 방문했다. 사진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남도는 지난 18~19일 부여군 일원에서 국내 거주 외국인 30명의 관광지 방문 및 농촌마을을 체험이 진행했다. 미국, 아프리카, 남미 등 외국인 관광객들은 첫날인 18일 궁남지를 탐방하고, 부여 기와마을에서 숙박하며 연잎밥 만들기 등 농촌 문화를 체험했다. 19일에는 정림사지, 서동요 테마파크 등을 방문했다. 사진은 외국인들이 관광을 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관광진흥과 041-635-3894

중소기업 수출 회복 지원에 앞장

중소 수출기업 지원단 운영
기업 애로해결 등 종합 지원

충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 등을 위해 '충남도 중소수출기업 지원단'을 운영한다.

도는 지난 22일 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8개 관계 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충남도 중소수출기업 지원단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지원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수요 감소, 해외 현지 활동 제약, 유동성 자금 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수출기업의 종합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충남

의 지난 6월 수출은 전년대비 43% 감소한 369억 달러, 수입은 214% 감소한 137달러로 집계됐다.

무역수지는 232억 달러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 시 글로벌 소비침체로 인한 중간재·소비재 수출 중심의 중소기업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도는 이번 지원단 구성을 통해 기관별 분산된 기업으로 지원 기능을 통합, 어려움에 처한 중소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로 인해 수출을 계획하는 내수기업이 포스트코로나에 수출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통상과 041-635-2252

구락쟁이랑 구락쟁이랑

이명재의 충청말 이야기 (45)

지역말 연구해온 이들 모여
'아궁이' 충남지역어 검토
아궁지·아국쟁이·구락쟁이
서산 등 서북에선 구락쟁이

"구락쟁이랑 구락쟁이랑 어떻게 달라요?"

7월 7일, '말모이 100년, 다시 쓰는 우리말 사전' 편찬을 위한 모임이 상명대에서 있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어원, 한글학회와 조선일보가 힘을 모아 만들어가는 '전국 우리말사전' 편찬작업의 일환이란다. 취재를 위해 조선일보 말모이 팀이 오고, 충남언어를 연구하는 지역 대표자 여섯이 모였다.

모임은 말모이 100년 사무국장을 맡은 상명대 김형주 교수가 이끌었다. 그는 충남 지역어로 선정된 400개의 어휘에 대한 검증 작업을 요청했다. 그리고는 지역대표자들에게 두꺼운 종이판 한 장씩을 나눠주었다.

"오늘 선정된 어휘는 '아궁이'예요. 표준어 아궁이를 표현하는 충남 지역어는 여럿이래요. '아궁지, 아국쟁이, 구락쟁이' 등이라고 하는데요. 대표 분들이 사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쓰는지 하나씩 써서 위로 들어주세요."

내가 사는 예산에서는 위 세 말이 다 쓰였다. 어릴 적 나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쓰는 '구락쟁이'를 배워 썼다. 같은 식구인데도 할머니는 늘상 '구락쟁이'라고 썼다. 반면 내 주변 친구들은 '아궁지'를 많이 썼다. 나는 가만 옆을 훑쳐보았다. 세종에서 온 대표는 '고래구멍'이라 썼다. 대전과 논산 대표는 '아국쟁이'와 '아궁지'라 썼다.

돌아보면 내가 사는 예산에서는 '구락쟁이'를 많이 썼다. 1960년대 이전의 '구락쟁이'는 서산, 태안, 당진, 아산, 홍성, 청양 등의 충남서북 지역에서 가장 흔히 쓰인 말이다. 이후 표준어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구락쟁이, 아국쟁이'의 쓰임은 줄어들었다. 대신 표준어를 닮은 '아궁지'가 많이 쓰이다가 이제는

아궁지마저 지워졌다. 나는 구락쟁이라고 쓰려다가 그만 됐다. 아무래도 당진과 서산 대표들이 구락쟁이를 쓸 것 같았기 때문이다.

'아국징이'. 매직펜을 들어 큼직하게 써 들어 올리는데 옆에 있던 기자가 묻는다. '구락쟁이'랑 '구락쟁이'가 어떻게 다르냐니, 이게 뭐 소리?

"예?"
"아, 앞에 한 분은 '구락쟁이'라고 쓰고 한 분은 '구락쟁이'라고 썼는데, 이 '-쟁이'랑 '-쟁이'가 어떻게 다른가 하고요."

앞을 보니 당진과 서산에서 오신 대표자가 글자판을 들고 있다. 한 분은 '구락쟁이', 한 분은 '구락쟁이'다. 이것 질문이 참 그렇다.

"오티기 다르긴 뭐가 오티기 달라요? 그냥 쓰구 싶은 사람 맘이지."

"예?"
옆에 있던 국장이 하하 웃는다. 다른 이들도 따라 웃는다.



이명재
시민·충청언어연구소

여름철 ASF·구제역 방역활동 추진

ASF 발생지역 돼지 반·출입 금지

충남도는 여름철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구제역 차단방역 대책을 지속 추진한다.

도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에서 야생멧돼지 ASF 바이러스가 620여 건 검출됐다.

문제는 지난 5월부터 출산을 마친 야생멧돼지의 개체수와 활동성이 크게 늘어나면서 ASF 확산 우려가 상존해 있다는 점이다.

도는 ASF 바이러스 검출지역과의 연결고리 차단을 위해 돼지 반·출입

금지를 계속 시행하고, 거점소독시설 19개소를 24시간 지속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농장단위 차단방역 강화를 위해 7월 중 모든 양돈농가 대상으로 방역실태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소독차량 12대를 동원, 양돈농가 진입로에 대한 소독과 야생멧돼지 차단방역 물품 지원을 강화한다.

구제역 차단을 위해선 지역·축종별 항체양성률을 분석하고, 시군과 매월 항체양성률 제고대책 보고회를 연다.

/동물방역위생과 041-635-4111

재난·사고 현장 매뉴얼 보급

재난유형별 이·통장 대응요령 등

충남도는 각종 재난 및 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이·통장 현장조치 매뉴얼'을 제작·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조치 매뉴얼 배부를 통해 도내 이·통장들의 재난현장 조치능력 향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주요 내용은 ▲재난이 일어나면 해야 할 일(재난유형별 이·통장 역할, 마을방송 등) ▲도민 안전 관련 정보(도민 안전보험, 풍수해 보험, 도민 안전 점검청구제, 긴급 신고 요령 등) ▲위급할 때 연락할 곳(재난·사고 관련 비상연락망, 장비·물자·인력 지원 연락처 등) ▲안전점검의 날 등이 담겼다.

/안전정책과 041-635-5622



‘갑질’ 막고 정신건강 살핀다

맞춤형 상담, 치유 프로그램 등 공동주택 상생 가이드라인 마련

충남도가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노동자의 정신건강을 위해 맞춤형 상담·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도에 따르면 도내 아파트 경비원과 미화원, 시설관리자 등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과 상생의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위해 ‘공동주택 노동자 마음건강 돌봄 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우선 도내 632개 아파트 단지 9000여명의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위한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세대(천안, 아산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2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신청을 받아 충남일자리진흥원을 통해 심리검사를 진행한다.

심리검사 내용은 ▲고용 방식, 근속 연수, 급여 등 기본 사항 ▲초과근무 ▲휴게 시간 ▲휴게 공간 유무 ▲육설·무시·폭언·구타 등 ‘갑질’ 경험 여부 등이다.

도는 심리검사 결과를 토대로 정신건강 상태 분석을 실시해 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대해서 심층 대면상담과 전문상담을 실시한다.

이어 집중 치유 프로그램과 신체·마음 이완 프로그램, 소통과 갈등 관리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상생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지별로 업무협약을 맺는다.

내달 말까지 도와 대전지방고용노동

청, 공동주택 입주단체,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이 참여하는 광역 단위 공동선언을 할 계획이다. 9~10월에는 시·군과 지방노동지청, 입주주민대표회, 시·군 주택관리업체 협의체, 노동단체 등 시·군 단위로 협약을 맺고, 10~11월에는 도와 시·군, 주택관리업체, 근로자 대표 등이 참여해 단지별 실천협약을 체결한다.

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노동자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정신건강을 위협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내 공동주택 노동자들의 근무여건과 정신건강 상태를 우선 살펴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한 뒤, 노동자와 입주민 간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해서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자리노동정책과 041-635-3414

문화비전 영상·웹툰 공모

8월 21일까지 온라인 접수

충남도는 8월 21일까지 ‘충남 2030 문화비전 수립을 위한 영상·웹툰 공모전’을 진행한다.

‘충남 2030 문화비전 슬로건 제안 및 홍보’를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공모전은 도민과 함께 도의 문화비전을 만들고,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했다.

2030 문화비전은 향후 10년간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충남형 문화·체육·관광 종합 발전 전략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 문화관광, 건강체육 등 5개 분야를 포괄할 수 있는 슬로건과 해당 슬로건을 자유롭게 표현한 영

상·웹툰 작품을 모집한다.

영상은 CF, 다큐, 애니메이션, 모션 그래픽, 뮤직비디오, 브이로그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출 가능하고, 웹툰은 3편 이상 분량의 연재 만화를 제출하면 된다.

누구나 제한 없이 개인 및 단체로 응모 가능하며 도 누리집 공모전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상은 분야별 1·2·3등 총 10편을 선정해 진행하며 총 500만 원 규모의 부상을 지급한다.

한편 도는 23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시행하는 지역·계층별 공청회를 통해 2030 문화비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문화정책과 041-635-2417



해수욕장 방문객 발열 체크

충남도는 해수욕장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해수욕장 6곳을 대상으로 방문객에 대한 발열 체크와 백사장 취식 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발열 체크 및 손목밴드 착용 거부 시 해수욕장 입장을 제한하고 있으며, 해수욕장(백사장)에서 취식 행위를 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사진은 지난 17일 현장 근무자들이 태안 만리포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차단 방역 활동을 펴고 있는 모습.

/해양정책과 041-635-4766

천수만 입구 아기자기한 섬 ‘추도’

충청이 품은 섬 이야기 (19)보령 추도

천수만 입구 5개 섬 가운데 가장 서쪽에 위치해 있는 섬 빼섬·질염·치도 등으로 불려

추도는 충남도 보령시 오천면 효자도리에 딸린 섬이다. 면적 0.99㎢, 산높이 23m, 해안선 길이 1.9㎞이다. 육지인 안면도 남단 민수동 해안에서 동쪽으로 0.9km 떨어져 있다.

행정 구역은 보령시이지만 태안군이 더 가깝다. 생활권인 보령시 오천항과는 9.5km이며 차도선을 타면 약 50분 정도 걸린다.

추도는 안면도 쪽으로 쭉 빠져 있어 배에서 바라보이는 집들이 섬의 전부다.

추도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아기자기하고 작아 양중맞기까지 하다. 섬의 모양이 송곳처럼 뾰족하다고 하여 우리말로 ‘빼섬’이라 하는데 부근의 5개 섬 중에 안면도 쪽으로 빠져 있다 해서 ‘빼섬’이라 부른다는 말도 있다. 빼섬 외에 ‘질염’, ‘치도’라고도 한다.

추도는 이웃의 유명한 관광지인 장고도, 삼시도, 원산도에 비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여름 성수기에 비교적 한적하게 낚시와 휴가를 즐기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안면도와 오천항 사이 천수만 입구에 위치한 작은 섬들 가운데 하나인 추도는 그중 가장 서쪽에

있는 섬이다. 오천 항에서 50분 거리이지만 안면도 영목에서 출발하면 10분도 걸리지 않는 곳이다. 11가구 16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는 초미니 섬이다.

오천항은 천수만 입구에 있는 작은 섬들인 월도, 육도, 허육도, 추도와 소도를 이어주는 여객선이 다닌다. 오천항은 과거 조선시대 충청도 수군절도사영이 있는 충청수영성과 천주교 순교성지 갈매못, 백제시대 정철의 상징인 도미부인 사당 등 볼거리가 풍부하고, 접근성이 좋은 오천항 근처의 월도와 추도 등을 가 볼 수 있다.

또한 오천항은 전국 키조개 생산량의 60~70%를 차지할 만큼 대표적인 키조개 산지로 알려져 있다. 잠수부들이 채취한 키조개를 활용하여 샤브샤브, 꼬치, 구이, 무침, 회, 조개전 등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다.

20분이면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섬의 크기를 생각해 보라! 이렇게 작은 섬이기에 농사지을 땅은 거의 없고 바다와 갯벌을 농토 삼아 일년내내 굴과 바지락, 낙지, 조개 등을 잡는다. 한때 추도는 김양식으로 높은 소득을 올렸지만 보령 화력발전소의 가동으로 수온이 상승하여 옛말이 되고 말았다.

섬이 작고 경지가 적어 주민들은 여전히 고기잡이와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현재는 수입이 예전만 못하다. 이제 노약자만이 남아있는 추도는 향후 10~20년 후에는 무인도로 남을 가능성이 높은 섬이다.

/이재연 목포과학대 섬해양연구원

외암마을 등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26곳 선정

코로나19 위생수칙 준수한 마을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이 최근 발표한 ‘농촌관광 클린사업장’ 조사 결과 도내 26개소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클린사업장은 휴가철을 맞아 국내 여행 및 농촌 관광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농촌체험·관광 사업장 중 코로나19 위생수칙을 준수하고

안전·위생관리를 실천하는 사업장이다.

도내에서 선정된 체험농장은 공방고운, 맘맘스, 아오내오이 행복공간, 충남자연곤충, 은적자연농원펜션, 석송목장, 기산농장, 아랍누리, 농원1박2일, 외암마을, 강당골마을, 명가네힐링농장, 난사랑방, 평원농원, 관안팍 치유정원, 라르고팍, 푸레기마을, 아가새농장, 갈산도기, 움틀꿈틀 교육농장, 한

국토종씨앗박물관 맛있는 텃밭, 은성농원 등 22개소다.

농가맛집에는 밤꽃하파피오네, 셋집매, 가야수라간, 도랑골솜맛 등 4개소가 포함됐다.

한편 클린사업장은 농촌진흥청 누리집(www.안전농촌관광.kr)에서 8월까지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술원 041-635-6186

예산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 첫 발견

지난해보다 한달 빨리 출현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최진하)은 올해 첫 일본뇌염 매개 모기가 발견됨에 따라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에서 일본뇌염 매개 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해 해당 방역 당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5일 예산지역에서 채집한 모기 500여 마리 중 작은빨간집모기를 확인했다.

올해 도내 첫 출현 시기는 지난해보다 1달 정도 빠르며, 최근 고온다습한 환경이 지속되면서 산란조건이 좋아졌

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은 모기가 전파하는 인수공통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7~14일의 잠복기를 가지며 감염자의 95% 이상은 무증상으로 자신도 모르게 지나가거나 열을 동반한 가벼운 증상으로 끝난다.

다만 바이러스가 뇌로 침범하면 고열과 경련, 의식불명, 혼수상태로 진행돼 사망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041-635-6821

8월 3일까지 웹툰 창작자 모집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분야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맹창호, 이하 진흥원)은 8월 3일까지 웹툰·웹툰스토리·웹소설 포트폴리오 제작지원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한

다고 밝혔다.

제작지원 사업은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등 3개 분야, 최대 16건 작품을 선정해 총 26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자격은 천안시 거주자 또는 천안 소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이다.

선정작을 대상으로 1차 창작지원금 지급과 더불어 작품 고도화 컨설팅이 진행되며, 이후 참여 작품 중 우수작을 선정해 추가로 2차 창작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ctia.kr)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다.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041-590-0943



보령 추도 전경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220만 도민 의지 결집

서산 중리 어촌마을서 결의대회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촉구
현재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서해안 상처 치유해 줄 대안”



가로림만 해양정원 결의대회'에서 도민들이 대형 현수막을 마주 잡고 해양정원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가로림만을 국가해양정원으로 조성하지는 220만 충남도민 의지가 하나로 모였다.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른 논란과 반목, 유류 유출 사고 등으로 상처입은 가로림만이 해양정원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에 국책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5일 서산 중리 어촌체험 마을에서 양승조 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 가세로 태안군수, 어업인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가로림만 해양정원은 세계 5대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글로벌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충남형 해양신산업 역점 과제 중 하나다.

이 사업은 지난해 기본계획 수립 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돼 현재 예타가 진행 중이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2025년까지 5년 동안 총 2715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주요 사업은 해양정원센터 건립, 오지리 갯벌 생태계 복원, 갯벌정원 조성, 가로림만 생태학교 설립, 점박이물범 전시·홍보관 건립, 해양힐링숲

조성, 가로림만 전방대 건립, 가로림만 둘레길 및 식도락 거리 조성 등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가로림만 생태 자원 중요성 홍보, 해양정원 조성 국민적 공감대 확산, 성공적인 국가사업화 발판 마련, 220만 도민의 염원을 안팎에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결의문을 통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은 조력발전소 건설 추진에 따

른 주민 간 반목과 갈등,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 유출 사고 피해 등과 같은 충남 서해안의 상처를 치유해 줄 유일한 대안”이라며 “220만 충남도민은 지난해 우리 도를 방문해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약속하던 대통령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충남도민들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을 통해 가로림만의 건강한 해양 환경을 지키고, 수산자원이 회복되며, 가로림만이 치유와 화합의 공간으로 탈바꿈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자리에서 양승조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공약을 통해 이를 뒷받침 했고, 작년 10월에는 직접 충남을 방문해 환경과 경제가 공존하는 해양신산업의 미래를 약속했다”며 “앞으로 충남도는 온 국민의 자원인 가로림만이 자연과 인간, 바다와 땅을 하나로 잇는 명품 생태공간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가 2019년 10월 실시한 도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80.5%가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해양정책과 041-635-2765



보호종료청소년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충남도와 삼성전자가 보호종료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충남보호종료아동자립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 도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사랑의열매회관에서 삼성전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충남아동복지협회와 '희망디딤돌 보호종료청소년 자립통합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출산보육정책과 041-635-4546

도, 밤나무해충 친환경 약제로 항공방제

공주 등 5개 시군 6078ha 대상

공주 3013ha ▲부여 2802ha ▲서천 72ha ▲예산 61ha 등이다.

충남도는 천안, 공주 등 5개 시군 6078ha를 대상으로 밤나무해충 항공방제를 추진한다.

한편 이번 항공방제는 농약허용기준강화(PLS) 제도에 대응하고, 노동의존도가 높은 밤 재배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해 8월 말까지 실시된다.

이번 항공방제에는 산림청 헬기 28대가 지원되며, 산림청 권장 친환경 약제가 사용된다.

밤나무 항공방제 대상 지역은 ▲천안 130ha ▲

/산림자원과 041-635-2576

충남도립대, 신입생 모집 돌입

보령 응천고 첫 입시설명회

충남도립대학교가 2021학년도 신입생 모집 활동에 들어갔다.

충남도립대학교(총장 허재영)는 21일 대전·충청·세종지역 13개 전문대학 연합으로 찾아가는 고교 입학 박람회 첫 일정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고교 입학 박람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으로 참여하며 언택트 시대 달라진 입시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활동이다.

박람회 첫 일정으로 보령 응천고등학교를 방문했으며, 입시설명회를 비롯해 등록금과 장학금, 기숙사 등 대학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충남도립대는 박람회를 요청한 고교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우수 인재를 영입한다는 방침이다.

전문대 고교연합 입학 박람회 접수는 9월까지 지속되며, 참여를 원하는 고교는 링크스쿨(<http://linkschool.kr>)에 접속한 후 ‘대전·충청·세종 전문대학 연합입학박람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충남도립대학교 041-635-6699



충남도립대 전경

“도정 참여 이끌고 지역사회 이해도 향상”

8월 12일까지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

충남도가 대학교 여름방학 시기를 맞아 100명의 대학생을 선발해 행정체험 연수를 실시한다.

도는 17일부터 8월 12일까지 3주간 ‘2020 하계 대학생 행정체험 연수’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정체험 연수는 방학기간동안 지역사회에 대한 대학생들의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고, 도정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도는 지난달 17일부터 28일까지 대학생 하계

행정체험 연수 참여자를 모집, 지원자 417명 가운데 선발기준 우선순위에 따라 총 100명을 선발했다.

특히 이번 하계 행정체험 연수는 대상자 경합시 선발기준을 기존 1순위 고학년, 2순위 연장자 순에서 1순위 다자녀가정 대학생, 2순위 국가유공자 자녀, 3순위 민주화운동 유공자 자녀 4순위 고학년 순으로 개선했다.

도는 향후 기간제 선발기준 등에도 이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자치행정과 041-635-3594

지방보조금 알고쓰기
가격 부풀리기 금지편

그리고 사업수행 정지 명령 위반, 실적 보고서 거짓 신청을 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지원은 보조금은 정직하게 사용하세요!

가격 부풀리기를 통해 보조금을 과도하게 수령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습니다!

가격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허위 수령하는 것은 법령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안돼!!
관직서도 적용됩니다

그럼요~ 서류만 잘 써주세요~

부가세 포함 550만원이에요~

사정님~ 지난번 시공 잘 됐네요!~ 견적 얼마나 나왔죠?

지방보조금 예산 넘겨서 좀 더 부풀려서 결제하고 나머지는 다른 필요한 거에 쓸게요~

그래도 알까요?

우리가리 말 맞추면 어떻게 알겠어! 견책을 거야

탕 탕 탕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과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마을과 대학, 청춘을 노래하다

아산 월랑리 주민·유원대 대학생
코로나19 방역 모범보인 합동공연

코로나19로 인해 아티스트 뿐 아니라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예술이 없는 시기에 모범적 방역과 예방으로 진행된 지역 문화 공연이 화제다.

유원대학교 아산캠퍼스 미디어콘텐츠학과 학생들과 음봉면 장수마을 주민들이 화제의 주인공들이다.

지난 7월 14일 음봉면 월랑리 나니아 2560 카페에서 ‘청춘 The 청춘’이란 주제로 진행된 음악회는 같은 지역 내 대학생들로 구성된 청년예술인들과 평균 나이 70대의 ‘들음’ 색소폰동호회,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주민들로 구성된 ‘장수마을 동네 음악대’가 함께 참여해 만들어진 공연이다.

‘청춘 The 청춘’을 기획한 미디어콘텐츠학과 김영진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이순신 축제’를 비롯한 각종 지역축제 및 공연들이 취소되는 요즘 음악으로 하나 돼 여러 세대가 공



아산 장수마을 색소폰동호회 ‘들음’ 회원들과 유원대 미디어콘텐츠학과 학생들의 모습.

감할 수 있는 힐링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었다.”고 공연 의도를 설명했다.

졸업작품전으로 이번 공연을 기획한 유원대학교 4학년 문혁(23세) 학생은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을 위해 공연장에 일회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으며, 좌석 간의 간격을 넓혀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했다”며 “비접촉식 체온계로 발열 체크뿐만 아니라 방역명령에 성명과 연락처를 작성하지 않

으면 입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를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각자’가 아닌 ‘함께’라는 주제로 공연을 함께 하게 돼 고마웠다는 색소폰동호회 지길운(70세) 회장은 “이 공연이 내년에도 내 후년에도 계속 이어져 마을의 축제로 자리매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공연 소감을 말했다.

이혜진/온양신문

육근철, 자유시집 ‘야생화 농장’ 발간

시인의 삽화와 시가 어우러져
자연과의 교감·시상을 노래

‘넉줄시’라는 새로운 시적 장르를 창안해 낸 육근철 시인의 네 번째 자유시집 ‘야생화 농장’이 세상에 나왔다.

이번 시집에서는 130여 편의 시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우주, 5부로 나누어 싣고, 한양대학교 유성호 교수의 해설을 곁들였다. 특히, 시와 함께 시인이 직접 그린 삽화가 곳곳에 들어가 시와 어울리며 시 읽는 재미를 키워준다.

시인은 16년 동안 자그마한 농장에서 나무와 꽃을 손수 가꾸면서 야생화

등 자연과 교감하며 떠오른 시상을 그때그때 시로 옮겼고, 그 시들이 모여 이 시집 ‘야생화 농장’이 탄생했다.

육근철 시인은 이번 시집에 대해 “자연에서 길어 올리는 신생의 노래이자 시나 시인의 존재론에 대한 성찰”이라면서 “마음을 열고 야생화들이 들려주는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새롭게 자연과 자기 자신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집으로는 ‘물리의 향기’, ‘사랑의 물리학’, ‘길을 묻다’가 있다. 넉줄시집으로는 ‘반쪽은 그대 얼굴’, ‘설레는 은빛’, ‘처마 끝 풍경소리’가 있다. 넉줄시동인회장을 맡고 있으며, 2019



공주문학상을 수상했다. 신용희/금강뉴스

정립사지박물관, 공립박물관 평가인증기관 선정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지역 역사박물관 역할 ‘톡톡’

[부여] 부여군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립사지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 공립박물관 평가인증제에서 2018년에 이어 2회 연속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설립 목적의

달성도 ▲조직·인력·시설 및 재정 관리의 적정성 ▲자료의 수집 및 관리의 충실성 ▲전시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실시 ▲공적 책임 등 5개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서면조사와 현장평가를 실시한다. 이후 인증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여 정립사지박물관을 인증기관으로 최종 선정했다.

이번 평가인증을 통해 정립사지박물관은 그동안 백제불교와 정립사지를 이해하는 상설전시와 기증·기탁된 문

화재 및 문화유산을 활용한 특별전을 매년 개최해 지역소재 역사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온 그간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부여군시설관리공단 추정호 이사장은 “올해 8월부터 시작되는 정립사지박물관 백제역사체험 활성화 사업을 통해 최첨단 ICT기술을 접목한 다양한 역사컨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박물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부여군 제공

어린이 감성 음악극 ‘리틀 뮤지션’ 개최

충남문화재단 29일 도청 공연

충남문화재단은 7월 29일 충남도청 문화예술회관에서 온 가족이 함께하는 감성 사운드극 ‘리틀 뮤지션’을 진행한다.

공연은 작은 악사가 피리를 들고 해님이 얼어버려 춥고 어두운 세상을 구한다는 내용이다. 용기와 희망을 심어 주는 모험담 속에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가 어우러져 아이들의 상상력과 오감을 일깨워줄 예정이다.

‘리틀 뮤지션’은 2017년 이란 국제아동청소년연극제에서 연출상, 연기상, 음악상, 무대미술상 등 4관왕을 수상하고 2018년 영국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어린이공연 베스트3’로 선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중국 상해에서 열린 K뮤지컬 로드쇼 쇼케이스에 선정되는 등 세계 유수 페스티벌과 극장으로부터 꾸준히 초청받는 작품이다.

이번 공연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문진을 비롯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좌석제를 도입하는 등 관객과 출연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된다. /충남문화재단 041-630-2933

식민지사회를 일깨운 청춘시인

충남의 근현대 문인들
(18)서산 민태원



자리했다. 그는 길지 않은 생애동안 수필, 반안소설, 단편소설, 역사소설, 시, 희곡, 논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작품을 발표하며 정열적으로 활동한 문인이었다.

화려한 수식과 강한 어조로 일제치하 지식인의 절규 표현 현대적 문체에 빼어난 역량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예찬’은 교과서에 수록돼 널리 알려진 빼어난 수필로, 작가 민태원의 이름보다 더욱 유명한 작품이다.

1894년 서산시 음암면 신장리에 서 태어난 그는, 16살 때 상경해 경성고보를 졸업하고 일본으로 유학, 와세다대학 정경과를 졸업했다.

1917년 문예지 ‘청춘’에 수필 ‘화단에 서서’로 등단한 이후, 우보(牛步)라는 필명으로 활동했고, 매일신문을 시작으로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외일보 등에서 정치부장, 편집국장까지 역임했다.

1920년 김억, 변영로, 남궁벽, 염상섭 등과 ‘폐허’ 동인으로 활동했고, ‘청춘’, ‘개벽’, ‘동명’ 등의 잡지를 통해 작품을 발표했다. 연재소설 ‘새 생명’을 미처 끝내지 못한 채 1934년 젊은 나이로 타계했다.

그는 우리 근대문학 초창기였던 신소설과 현대소설의 전환기에 ‘어느 소녀’, ‘갑신정변’, ‘김옥균’, ‘음악회’, ‘검화(劫火)’ 등의 단편소설과, 1918년 한국에서 처음으로 ‘레미제라블’을 ‘애사’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다. 일본 번역서 ‘오노가츠미’를 ‘부평초’로, 역사모험소설 ‘철가면’을 ‘무쇠탈’로 번역해 반안소설의 대가로

‘청춘예찬’에서 보듯 그의 문학세계는 문학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절규에 가깝다. 감정을 다 삭이지 못해 토해내는 글은 서사적인 이미지를 떨쳐 버리고 사람들을 격동시킨다.

식민지시대를 살아가는 지식청년으로서 힘이 없어 일본에 당했음을, 이상이 부족해 희망을 잃어내지 못하는 쓰린 심정을, 오히려 화려한 수식과 강한 어조로, 각성의 소리로 터뜨렸음을 고백한다.

1930년대에 쓰여진 ‘청춘예찬’은 그가 당시에 현대적 문체에 대해 수준 이상의 역량을 지니고 있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너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물방아 같은 심장의 고동을 들어 보라. 청춘의 피는 끓는다 ...

‘청춘예찬’이 새겨진 문학비는 음암면 상흥리 국도변에 있다. 신장리 생가지는 관리가 되지 못하고 스산하지만 ‘청춘예찬’은 언제나 청춘으로 푸르름을 더해갈 것이다.



이정우 충남문인협회 회장



충청인의 詩香

빨래

아내가 새삼스럽게 빨래방망이를 만들어 달라고 했다. 때가 젖어 있는 갈래를 탁탁 두드려 빨고 싶은 모양이다. 몇 시간이나 정성을 기울여 방망이를 깎았다. 방망이를 받아 든 아내는 자기 몸 여기저기를 두드리며 시원하다고 한다. 오래 묵은 때를 빼내니 시원하겠지. 옷을 입은 채로 빨래를 하는 모양새다. 그래, 가끔은 사람도 빨래를 빨 듯 때를 빼낼 필요가 있다.

나도 좀, 방망이로 두들겨 마음에 찌든 때를 빼내야겠다. 방망이로 두들겨서 마음의 때가 쑥 빠져나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권선옥 시인

·52년 충남 논산 출생, 한남대 대학원 졸업
·76년 ‘현대시학’의 추천으로 문단 데뷔
·시집 ‘떠도는 김시습’, ‘갑옷의 자유’ 등
·충남문인협회장 역임, 현재 논산문화원장



충무공의 지혜

내포칼럼



백승중
한국기술교육대 겸임교수

임란 직전 전라좌수사 맡아 백성들과 허물없이 지내며 전투 때 필요한 정보 수집

암초·물길 이용해 왜군 대파 지리·유능한 부하 활용 등 한산도·명량대첩 이끈 역량

주말에 아산 현충사를 다녀왔다. 답답해도 가고 신이 나도 가는 곳이다. 한적한 현충사 경내를 걷노라니, 최근에 읽은 이야기 몇 개가 저절로 떠올랐다. 이순신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한 해 전 전라좌수사에 임명됐다. 남해안의 사정을 잘 알 턱이 없었는데, 일단적이 쳐들어오자 연전연승을 거뒀다. 거기에는 무슨 비결이 있었던 것일까. 좌수사 이순신은 날마다 해가 지면 남녀 백성을 수영 마당에 모았다. 백성들은 새벽이 될 때까지 짚신도 삼고 길쌈도 하는 것이었다. 밤이 깊으면 이순신은 술과 음식을 가져다 백성을 대접했다. 그는 평복 차림으로 백성들과 일상의 이야기를 허물없이 나눴다. 처음에는 백성들이 좌수사를 두려워했으나 시간이 지나자 서로 웃으며 농담도 나눌 만큼 가까워졌다. 주고받은 이야기 가운데는 고기 잡고 조개 캐며 지나다니는 바닷길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어느 항구는 소용돌이가 심해서 아차 잘못하면 배가 뒤집힌다.’ ‘어느 여울은 숨은 암초가 많아 심중 팔구 배가 깨진다.’ 이순신은 이런 이야기를 일일이 기억해뒀다가 날이 밝으면 현장을 찾아가 확인했다. 거리가 먼 곳은 장교를 보내 살펴보게 했다.(성대중, ‘청성잡기’, 제5권)

좌수사 이순신은 참으로 지혜가 있었다. 백성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깊은 신뢰와 정을 쌓았고, 장차 작전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했으니 말이다.

이후 일은 우리가 아는 바이다. 이순신은 후퇴하는 척하며 왜적을 함정으로 끌어들이기 일쑤여서 굳이 힘들여 싸우지 않고서도 이길 때가 많았다. 우암 송시열은 이런 이순신을 극구 칭찬하면서, “장수만 그래야 하는 것이 아니지요. 재상도 충무공처럼 해야 합니다.”라고 했다.

이순신이 남해안 바닷길을 훤히 알게 된 데는 다른 이유도 있었다. 휘하에 어영담이라는 장수가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남해안 여러 곳에서 근무했는데, 평소에 물길을 자세히 조사했다. 이순신은 그를 곁에 가까이 두고 도움을 받았다. 유명한 ‘한산도대첩’과 ‘명량해전’은 지리를 이용해서 적을 물리친 것이었다. 유능한 부하의 아낌없는 조력을 받는 것도 충무공의 장기였다.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 명나라가 과격한 수군이 외려 집이 될 때도 있었다. 무술년(1598) 2월 3일의 일이었는데, 진린 제목은 이순신과 함께 왜적을 공격했다. 얼마 뒤 썰물 때가 돼 이순신이 전투중지를 요청했으나 진린이 그 말을 무시했다. 그 바람에 명나라 수군이 탄 23척의 배가 개펄에 갇혔다.

때를 놓치지 않고 왜적이 한꺼번에 몰려들어 위기가 연출됐다. 다행히 이순신이 나서서 140명의 명나라 수군은 목숨을 구했으나, 이 전투로 명나라는 23척의 전함을 잃었다(신흥, ‘상촌선생집’, 제56권). 진린이 이순신의 충고를 순순히 받아들였다더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곰곰 생각할수록 이순신은 정말 큰 인물이었다. 젊은 시절 그는 스스로 이렇게 다짐했다. “장부가 태어나서 벼슬을 얻으면 몸 바쳐 일할 것이요, 그런 기회가 없으면 농사짓고 사는 것이다. 권세자에게 아부해 부귀를 흠치는 짓은 내가 절대로 하지 않겠노라.”(윤휴, ‘백호전서’, 제23권) 벼슬길에 처음 나설 때부터 마지막까지 그는 이 말대로 살았기 때문에 고달픈 자리에 있을 때도 초연했다. 우리는 과연 그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까.

소년이여 조그만 꿈을 가져라

나태주의 꽃꽃편지



한국시인협회 회장
꽃꽃문학관장

나와 비슷한 연배에 고등학교 정도만 공부한 사람치고 ‘보이스 비 앰비셔스(Boys be ambitious!)’, 그 문장을 모르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을 것이다. 번역하면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소년이여 큰 꿈을 가져라’ 정도가 될 것이다.

좋은 말이다. 이 말은 1876년 미국의 식물학자였던 윌리엄 클라크(William S.Clack) 박사가 일본의 삿포로에 세워진 삿포로 농림학교 초대 교장으로 초빙돼 근무하다가 본국으로 돌아가면서 일본 학생들에게 남긴 말이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말을 그대로 배워다가 사용해 왔다.

인생의 뜻을 강조하는 교사치고 학생들에게 이 말을 안 가르치고 강조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다. 당연히 이 말은 인생의 금과옥조 같은 교훈으로 전승돼 왔다. 나 또한 고등학교 시절 어느 선생님에게서 배웠는지도 모르게 배워 익히게 된 말이다.

과연 그런가? 가끔은 이 말을 가슴에 안고 생각해본 일이 있다. 인생에서 야망이든 큰 꿈이든 그런 것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혹시 그런 것들로 해서 인생을 버린 일은 없고 헛디딘 일은 없었던가. 살아온 바에 의하면 오히려 큰 꿈(야망)이란 것이 거추장스런 때가 있지 싶다.

나의 청소년기 꿈은 아주 작은 것이었다. 하지만 그 꿈은 구체적인 것이었다. 시인이 되는 것과 예쁜 여자와 결혼하는 것과 공주에서 사는 것이 나의 꿈이었으니까. 그러나 그 꿈을 이루는 일은 쉽지 않았다. 지금도 나는 시인이 되는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고군분투하면서 살고 있다.

오늘에 와 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큰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려고 허우적대지 말고 오히려 조그만 꿈을 가지고 그 꿈을 분명히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 인생을 바쳐 그 꿈을 이뤄내도록 하라. 그것이 진정한 그대들 성공이고 행복에 이르는 첩경이다.

소년이여 큰 꿈을 가지라. 그것은 분명 옛날식 충고요 허황된 교훈이다. 그 대신 나는 말해주고 싶다. 소년이여 조그만 꿈을 가져라. 그리고는 끝내 그 꿈을 이루도록 하라. 이것은 결코 허언이 아니다. 내 인생을 걸고 하는 말이다.

정확성이 요구되는 문화재 안내

생생현장리포트



김경미
홍주신문 기자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디를 찾아가고 누구를 만나는 사실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 만큼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아마 세상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찾는다는 것에 대해 목적이 없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만남의 목적은 필요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목적이 없는 만남이라도 모든 만남에는 분명 목적이 자리하고 있다. 만약 만남에 목적이 없다면 만남의 의미와 가치가 과연 성립될까. 만남이란 자체에는 분명 그 무엇을 알고자 하는 정보습수의 목적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기자가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을 찾는다는 일은 분명한 목적이 전제되는 일이 아닐까. 기자라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고 어느 곳인가를 찾아 취재의 목적성을 달성하고자 많은 만남의 과정에서 살아간다. 무엇인가 필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만남을 요청하거나 시도를 하지도 않을 것이다.

기자생활을 하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많은 곳을 찾아다녔다. 항상 취재하기 전에 말할 수 없는 설렘과 긴장감을, 취재를 하면서는 형용할 수 없는 감동과 지혜를 얻기도 했다. 새로운 사람을 친숙하게 바라보면서 만남의 의미와 가

치, 기쁨을 느끼기도 한다. 이처럼 취재를 위해 찾아가는 곳 중에서 문화유적과 명승지를 만나는 일이 있다.

특히 사찰이나 문화재 등의 취재에서 안내판과의 만남은 절실한 목적이기도 하다. 안내판은 문화재나 명승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때마다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니, 바로 문화재나 명승지 안내판의 잘못된 문장이다. 우리말에 외국어까지 친절하게 안내한다고 했지만, 만약에 안내판의 글이나 표현이 잘못 기록됐다면 어떨까.

문안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분량이 많거나, 표현이 잘못되고 오타 자까지 있다면... 오류의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기록됐다면, 그 안내문을 읽는 사람들은 사실로 인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히 문화재 설명에 대한 어려운 전문용어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면서, 그 오류의 수준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충남과 홍성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에도 오류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홍성지역의 문화재 안내판에서도 심각한 오류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문화재 안내판은 관람객들에게 친숙하고 빠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간결한 문안을 정확하게 사용해야 한다.

오류가 확인될 경우 역사적 고증과 전문가의 자문 등을 통해 문안을 검토하고 안내판을 교체해야 한다. 기자가 ‘사실 확인’에 충실해야 한다면, 문화재 정보를 소개하는 안내판 문구는 그래서 ‘정확성이 생명’이다.

백제의 영욕을 품은 부소산

충청의 산수·유교의 산수관 ⑧부여 부소산

현재의 서울지역을 도읍으로 해 4세기까지 전성기를 누리던 백제는 서기 475년, 3만 군대를 이끌고 침입한 고구려에 의해 왕도가 함락되고, 개로왕이 죽음을 당하는 참사를 맞이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백제는 웅진으로 천도했고 웅진백제의 시대를 열었다. 동성왕(재위 479~501년), 무령왕(재위 501~523년), 성왕(재위 523~554년)으로 이어지던 웅진시대 백제의 중흥기였다.

웅진의 지리적 조건은 방어에는 유리한 요충지였지만, 수도로서는 협소했다.

성왕은 무령왕이 구축해 놓은 안정적인 기반을 바탕으로 즉위 16년인 538년 사비로의 천도를 단행했다. 사비 지역은 금강이 휘돌아가고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 산업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수도로 삼기에 유리한 곳이었다.

이렇게 형성된 백제의 마지막 왕도를 받쳐주던 산이 부소산이다.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위치한 이 산은 높

이 106m에 지나지 않는 나지막한 산이다. 성도의 방어를 위해 쌓은 부소산성이 남아있고, 성내에는 영일루·사비루·고란사·백화정·삼층사·궁녀사 등 많은 사적지와 문화재가 있다.

특히 유명한 곳은 낙화암이다. 낙화암은 부소산 북쪽의 절벽으로, 백제가 멸망할 때 삼천궁녀가 백마강에 몸을 던져 자결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꽃잎이 떨어지는 것 같았다는 전설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승자의 입장에서 기록된 부풀려진 역사일 뿐이다.

백제의 마지막 임금이었던 의자왕(재위 641~660년)이 형제를 추방하고 주색에 빠지는 등, 잔혹하고 방

탕한 인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지만, 이 역시 일방적인 관점에 불과하다.

즉위 이전에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가 있어 그때 사람들이 해동의 증자라고 일컬었다.’라고 ‘삼국사기’에 기록돼 있을 정도로 유학적 소양과 인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재위 초기에는 신라와의 수차례 전투에서 혁혁한 전승을 올릴 만큼 군사적 능력도 탁월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집권 후기에 들어서며 사치와 주색에 빠졌다고 한다. 의자왕이 초심을 유지했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드는 대목이다. 부소산은 의자왕의 사연을 모두 알고 있으리라.

/이치역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부여군 부여읍 쌍북리에 있는 부소산 전경

지역화폐 주고 받을때 소비자와 상인 함께 웃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충청남도 15개 시·군이 발행한 지역화폐의 인기는 식을 줄 모르고 있다. 경제 위기 속에서 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지역화폐 사용 현장에서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지역화폐 사용은 경제 활성화 지름길”

유종석 씨/해산물 판매

제가 봤을 때는 지역화폐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10% 할인되는 부분이 있어 사용하는 고객들이 늘어났습니다. 최근엔 모바일로도 이용하는 손님들도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 사용은 지역경제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전통·재래시장과 골목 상권을 살리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 판매의 절반 가까이 되는 부분이 지역화폐로 결제되고 있으며, 고객과 지역화폐를 주고 받는 데 전혀 불편함이 없습니다. 현금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상인들의 반응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현금처럼 통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행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소비자들한테는 할인혜택까지 주어져 일석이조의 장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더 확대되길”

유은숙 씨/젓갈·해산물 판매

지역화폐 발행 효과가 최근 들어 좋아졌습니다. 올해 4월 이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주시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예년에 비해 고객들이 줄고 매출도 주저앉았지만 지역화폐를 들고 시장을 찾아주시는 분들 덕분에 시장에 활기가 생겼습니다. 고객들이 현금 사용은 부담스러워하시는 데 비해 지역화폐는 현금보다 부담이 덜해 소비확대로 이어집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시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군내 대부분 가게에서 사용가능한 지역화폐가 훨씬 편합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이 카드보다도 지역화폐 사용을 선호하기도 합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 지역화폐를 좋아합니다. 지역화폐를 확대 공급할수록 ‘사고 파는’ 시장의 거래가 활발해져 더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가맹점이 많아 활용이 편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코로나19가 종식돼도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해봅니다.



“코로나19 가뭄에 단비 내려준 지역화폐”

김정숙 씨/떡집 운영

손님들의 지역화폐 사용이 늘어나면서 코로나19로 한참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가짜뉴스로 힘들었던 흥성전통시장의 상황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특히 지역화폐가 발행되기 전에 재래시장에서도 카드결제가 많았는데 지역화폐 사용이 점차 늘면서 현금과 같은 지역화폐를 주시는 고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체계적 유통 시스템이 지속적으로 정착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거 같습니다.

지역화폐는 거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좋고, 소비자 입장에서도 카드 사용할 때와 달리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환전하는 데 얼마 걸리지 않아 현금화하기 쉬운 것도 지역화폐의 큰 장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재래시장의 앞길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역화폐는 상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과 전통시장상인 모두 만족시켜”

김동광 씨/반찬가게 운영

충청남도에서 지역화폐 확대발행하며 전통시장에서 지역화폐 사용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매출의 10%정도를 지역화폐로 거래하고 있습니다. 손님 입장에서는 상품권이기 때문에 카드나 현금보다 좀 더 쉽게 소비를 하십니다. 특히 소비자들이 지역화폐를 구매할 때 1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도 소비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데 더해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100%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는 점도 도움이 됩니다. 가끔 손님들께서 ‘이걸 쥐도 되나’ 부담가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인분들이 오히려 부담 없이 지역화폐를 쓰라고 권유드립니다. 이러한 이유로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한층 밝아지고 좋아졌습니다. 더운 여름이 끝나고 추석이 다가오면 지역화폐 사용과 함께 시장 분위기가 더욱 활기차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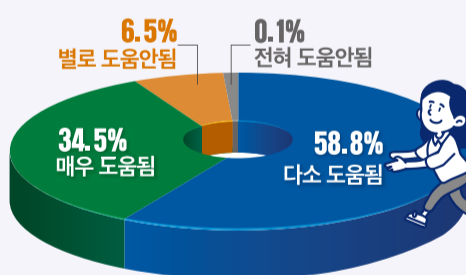


충남 지역화폐 인기 고공행진... 6개월 간 3787억 발행·경제파급 1조 4000억 전망

충남지역화폐 사용 실태 설문조사

충남 ‘지역화폐’ 발행유통 현황
(단위: 백만 원, 2020.06.30.기준)

구분	20년발행 계획	발행유통현황		
		발행액	판매액	환전액
계	332,820	378,700	286,391	222,411
천안	60,000	55,555	55,555	44,332
공주	20,000	19,321	19,321	15,729
보령	18,000	22,900	16,489	11,332
아산	32,000	46,064	24,592	24,506
서산	33,000	50,000	32,987	23,525
논산	15,400	14,000	10,808	8,733
계룡	6,000	10,000	7,313	6,050
당진	14,000	8,000	5,602	2,862
금산	8,500	21,000	15,529	9,938
부여	55,380	43,184	43,184	35,350
서천	20,000	23,300	18,658	16,791
청양	9,300	13,475	6,180	3,019
홍성	12,400	11,000	6,147	3,936
예산	14,500	21,900	15,613	10,505
태안	14,340	19,000	8,327	5,797



충남 지역화폐는 취약계층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된다' 93.4%

충남 지역화폐의 사용용도 및 기여도

(단위 : %, 중복응답)

구분	전체 (280명)	연령별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식재료 구입	71.2	63.6	75.1	69.0	68.8	79.6
각종 생활용품 구입	57.4	37.4	58.1	52.4	60.0	79.2
외식/식도락	47.5	50.3	48.7	58.0	51.5	20.6
취미/여가활동	7.6	23.0	2.4	2.1	8.9	8.2
학원비 결제	5.3	4.5	11.9	7.8	0.0	0.0
가전제품 구입	3.7	8.9	2.5	3.7	2.3	2.7
자기계발 활동	3.3	6.7	0.0	2.4	4.8	4.3
의료 및 약제비 지불	1.6	0.0	1.3	1.2	2.4	3.1
돌봄서비스 이용	1.2	2.4	0.0	3.3	0.0	0.0
여행	0.6	0.0	0.0	0.0	1.3	2.4
연료 구입	0.5	3.3	0.0	0.0	0.0	0.0

올해 발행 목표 반년 만에 돌파

가맹점 8만2581곳·가맹률 87%

“지역경제 선순환 공감대 형성”

소득 역외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도입한 충남 지역화폐의 인기가 하늘로 치솟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발행액이 4000억 원을 넘으며,

올해 발행 목표액을 6개월 앞당겨 초과 달성했다.

지난 7월 1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도내 15개 시·군이 발행한 충남 지역화폐는 총 3787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한 해 발행 목표로 잡은 3328억 2000만 원보다 458억 8000만 원 많은 규모다.

시·군별로는 천안이 555억 550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서산 500억 원, 아산 460억 6400만 원, 부여 431억 8400만 원, 서천이 233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판매액은 천안 555억 5500만 원, 부여 431억 8400만 원, 서산 329억 8700만 원, 아산 245억 9200만 원, 공주 193억 2100만 원 등 총 2863억 9100만 원으로 집계됐다.

가맹 업소는 8만 2581곳으로, 전체 대상 업소 9만 4199곳의 87% 수준이다.

도 관계자는 “충남 지역화폐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구입 시 할인 혜택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민 사이 지역경제 선순환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도 하나의 이유로 풀이 된다”라며 “앞으로도 특별 할인이나 가맹점 확대,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등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충남 지역화폐 3328억 2000만 원 발행 시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1조 40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소상공기업과 041-635-3444



보령·홍성, 10만 명 깨질라.. 인구절벽 특단

보령시, 인구 전입 인센티브 시행
전입실적 없을 시 보조금 불가

홍성군, 청년 정착 지원 등 집중
출산금 최고 2500만 원 늘려

보령시는 지속되는 인구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인구 전입실적에 따라 지원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실적에 따른 인구증가 인센티브제를 시행한다고 것.

시에 따르면 각종 인구정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전출로 인해 매년 800~1000명씩 감소하고 있다. 올 연말에는 보령화력 1·2호기 조기 폐쇄에

따른 인구감소가 약 15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돼 인구 10만 붕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인구 10만 지키기를 위해 기관단체의 지원 경비에 대해 ▲인구 전입 실적 단체에 대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증액 ▲인구 전입 실적이 없는 단체의 경우 재정지원 증액 불가 등 기본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인구전입 실적이 없으면 신규 보조금 지원단체의 경우 전입실적 5명 이상부터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홍성군은 내포신도시의 성장과 함께 지난 2018년 최대인구 수 10만 1747명을 기록한 이후 꾸준히 감소해 올해 1월 말 10만 347명을 기록하며 10만명 사수가 위태롭다.

군은 인구감소 극복을 위해 ▲전입 지원 ▲귀농귀촌 지원 ▲출산·육아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을 중점 시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청년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친다. 공무원, 청년단체, 청년 농부, 대학생 등으로 구성된 홍성군 청년정책위원회 운영과 함께 광천읍 대평리에 폐창고를 활용한 30억 규모의 홍성 복합문화창업공간 ‘잇슈창고’를 조성하고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중이다.

출산 축하금도 대폭 상향했다. 첫째 2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600만원, 넷째 1000만원, 다섯째이상 3000만원으로 작년 대비 150만원~2500만원 늘렸다.

/도정신문팀



삼교호 왜목마을 야간조명 [당진]당진시가 삼교호에 왜목마을 관광지에 야간 경관조명을 설치했다. 빛나는 달과 은하수 사이를 자유롭게 헤엄치는 돌고래를 담은 조형물을 설치해 입구를 환하게 밝혔다. /당진시 제공

6개월 거주해야 아파트 우선공급 자격

외부 투기세력 차단 강화

[천안]앞으로는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시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거주 기간을 채워야 한다.

천안시는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

했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으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한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 다른 일부 지자체는 이미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천안 거주자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효과 등으로 천안의 부동산 시장이 들쭉이고 있다. 코로나19에도 지난 3월 청약 서희스타힐스 청약 경쟁률은 21.3대 1을 기록했다.

/천안시 제공



현충사 은행나무길 LED 포토존 [아산]아산시는 아산의 대표관광지인 현충사 은행나무길에 LED포토존을 설치했다. 이번 설치된 LED포토존은 가로 2.2미터, 높이 1.3미터로 밤에도 은행나무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했다. /아산시 제공

보령머드팀 여자바둑 단독 1위 등극

최정 올 8연승 불패신화
강다정·박소울도 선전

[보령]세계 여자랭킹 1위인 최정 선수를 앞세운 보령머드팀(감독 문도원)이 한국여자바둑리그 단독 1위에 올랐다.

보령시는 지난 10일 8라운드에서 보령머드팀이 인천 EDGC를 2대 1로 격으면서 16일 현재 6승 2패를 기록, 리그 1위를 질주하고 있다.

특히 최정 선수는 올 시즌 한국여자바둑리그 전 경기 승리로 8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지난 2018년 시즌부터 시작된 정규리그 25연승, 국내 여자기사 상대로 55연승을 기록하는 등 불패의 신화를 기록하고 있다.

이와 함께 2지명의 강다정 2단은 1승 5패를 기록하며 다소 아쉬운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대부분 상대팀의 에이스와 상대해 접전을 벌였고, 3지명의 김경은 1단은 4승 3패를 기록하며



바둑을 두고 있는 최정(사진 왼쪽) 선수

선전하고 있다.

또한 4지명의 박소울 1단도 첫 대회 참여임에도 불구하고 1승 2패를 기록하며 향후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용봉산의 석굴과 역사적 사건

새로 배우는 충남學

최충헌 아들 최항 반란
무고한 홍주 주민 목숨 잃어
최항 최후 은거한 상하리 석굴



용봉산 석굴

우리고장 홍성과 예산 접경에 위치한 용봉산은 불교문화의 보물창고라는 별칭을 갖고 있다. 용봉산은 불교유적 못지않게, 정상 부근 암벽에 위치한 석굴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 석굴은 옛날 고려시대 홍성에서 일어났던 반란사건과 관련한 역사의 현장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고려 역사에서 무신정권의 대표적인 인물은 최충헌(崔忠獻, 1149~1219)이다. 최충헌은 문무의 전권을 장악하고 마음대로 왕을 폐위시키는 등 권력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최충헌의 말년에 병이 중하여 위독해지자, 두 아들의 권력다툼이 표면화 되었다. 큰아들 최우와 동생 최항의 권력다툼이었다. 결국 큰아들 최우가 권력을 잡았고, 동생 최항(崔昞, 1168~1230)은 이곳 홍주로 유배되었다. 최항은 10년 동안 홍주성에서 유배생활을 하면서도 집안의 세력을 믿고 제멋대로 행동했다.

고려사에는 “최항은 홍주로 귀양 간 후 항상 불평을 품고 있으면서 자택 공사를 크게 벌여놓고 불이한 짓을 많이 하였으며, 주민들을 침해하였으므로 온 경내가 다 고초를 겪었다. 최우와

홍주의 수령이 금지하였으나 듣지 않았다.”라고 했다.

급기야 최항은 1230년 8월에 홍주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최항의 반란소식은 중앙에 전해졌고, 곧바로 관군이 동원되어 토벌작전이 벌어졌다. 최항은 수세에 물러나 수하들을 데리고 용봉산으로 몸을 피했다.

최항은 산속에 혼자 남아 주변 석굴 속으로 들어가 목을 찌르고 거짓으로 죽은 체 하고 있었다. 결국 최항을 쫓던 군사들이 석굴 속에서 최항을 발견하고 사로잡아 홍주옥에 가두었다.

홍주에 유배되었던 최항의 반란으로 홍주 인근 수령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반란에 가담하거나 조금이라도 협조했던, 결성·대흥·예산 등 일곱 고을 현감들과 무고한 홍주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중앙의 정치권력 투쟁에 휩쓸려 홍주지역의 무고한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던 사건이다.

용봉산 빈절골 상하리 사지에서 20여 미터 쯤 위쪽으로 석굴이 하나 있다. 이 석굴은 최항이 최후에 몸을 숨기며 은거했던 장소로 추정되는 곳이다. 용봉산의 또 다른 역사 유적으로 관심을 끌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다. /김정현(홍성군)



만리포해수욕장 차 없는 거리 운영
관광객 편의시설 등 설치

[태안]태안군이 만리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30일까지 만리포해수욕장 상업지구 전면부(노래비-현대마트) 400m에 차량 진입을 통제해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한다. ‘만리포 차 없는 거리’는 해변에 인접한 상업지구 전면부 구역의 교통혼잡을 사전에 방지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여유롭게 해변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 군은 이번 ‘차 없는 거리’ 운영을 위해 12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주차금지표지판 등의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태안군 제공

백년 만에 핀다는 행운의 고구마 꽃

[계룡]운이 좋으면 100년에 한번 볼까 해서 행운을 가져온다는 고구마 꽃이 16일 계룡시 엄사면 연화동길 K 모씨 뒷밭에 피었다.

‘행운’의 꽃말을 가진 고구마 꽃이 피면 ‘자유와 평화가 온다’고 전해지

고 있다.

역사적으로는 1945년 광복 때와 1953년 휴전, 1970년 남북공동성명 발표 직전에 국내에서 꽃이 피었다는 기록이 있다.

전철세/계룡일보사



코로나19속 충남 시·군은 유튜브 열풍 불었다

당진, 농튜브 실전 위주 육성
서산, SNS 시민 서포터즈 운영
논산, 한글대학 어르신 유튜브 변신
홍성, '관광 전자지도' 서비스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일선 시군에서도 'SNS 활용'이 활기를 띠고 있다. 당진시는 농업인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을 위한 사이버농업인 e-비즈니스 심화교육에 참여할 교육생 30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른바 농튜브 양성이다. 교육내용은 스마트폰을 활용한 유튜브 브랜드 채널만들기, 유튜브 영상에 자막넣기, 음악넣기, 동영상 유튜브에 올리기, 라이브방송, SNS 통합 마케팅 운영전략 등 온라인 농산물 판매를 위한 실습 위주다. 서산시는 온라인을 통해 시정을 홍보

보할 제6기 SNS 서포터즈를 모집한다. 선발된 서포터즈는 시청 주요 시책과 생활정보 등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앞으로 청소년SNS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글대학 어르신들도 유튜브로 세상과 소통에 나섰다. 논산시는 전국 최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논산시 한글대학의 학습자와 강사가 유튜브로 변신, 가슴 따

뜻한 '동고동락 논산' 이야기를 전하고 있다. 현재 1편 '할매, 발매다 없어지다'와 2편 '할매가 나타난 곳은?'을 제작, 논산시 공식 유튜브 채널인 '논다 산다'에 업로드해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댓글로 훈훈함을 자아내고 있다. 홍성군은 실시간 관광정보를 손쉽게 편리하게 얻을 수 있는 '홍성군 스마트관광 전자지도' 서비스를 시작했다.

스마트폰으로 '홍성 전자지도'를 검색해 접속하면 인근의 관광지, 맛집, 숙박 등 관광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서비스다. 특히 홍성 홍주읍성, 만해한용운생가, 그림같은수목원, 홍성전통시장 등 주요 관광지부터 사용자의 인근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 관광 동선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도정신문팀



태안 간척지에 핀 해바라기 [태안]태안군 이원지구 간척지 수로와 도로변 12km에 핀 코스모스가 벌써부터 가을을 재촉하고 있다. 원복면은 지난 5월부터 이곡리와 황촌리 간척지에 코스모스, 해바라기 등 500kg을 파종하고 학암포해수욕장과 신두리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한 시민이 만개한 해바라기를 만끽하고 있다. /태안군 제공

농산물 판매 라벨지 이름 화제

당진 '우강하나로마트'

#이 참외 널 보러왔어 등 웃음
"잠시라도 즐거우시다면" 기꺼이

[당진]최근 소셜네트워크에 '마트 직원의 흔한 드립수준'이라는 제목이 달린 사진들이 인기가 높다. #나에게 바나나, #이 참외 널 보러왔어, #나를보고시 포도 참어, #이 참외 널 보러왔어 #널 사랑할 수밖에~ #정신들 체리 세요 #내상태가 메론 등 농산물 라벨지에 붙은 이름이다. 라벨지에 센스있는 작명으로 인기를 받고 있는 곳은 바로 당진 우강하나로마트다.

지난 2018년 11월 개점한 우강하나로마트 직원들은 개점 이후로 라벨지 작명을 시작했다. 우강농협협동조합 김영구 조합장은 "과일 이름으로 재미있는 문구를

넣어보자는 직원들이 하나둘씩 아이디어를 내서, 라벨지에 적어 출력하고 있다"며 "라벨지를 본 고객들은 재미있다고 웃고 가시고는 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고 말했다. 마트를 찾는 손님들에게 소소한 재미를 주기위해 시작한 라벨지 센스는 최근 온라인에서 인기를 얻었다. 그러다가 라벨지 문구를 재밌게 본 고객들이 온라인에 라벨지 사진을 찍어 올리면서, 관심을 받았고 우강하나로마트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당진을 방문했던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는 경우도 생겨났다. 직원들은 "직원들도 라벨지에 과일 이름을 재밌게 적는 것을 즐거워하며, 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다"며 "우강하나로마트의 유쾌한 라벨지를 보며 고객들이 잠시나마 웃고 시고 즐거우시면 좋겠다"고 전했다. 지나영/당진신문

천안중앙시장 배달앱 '장바요' 불티

온라인 쇼핑 배달앱 주문 인기
천안 전역 집 앞까지 배달
배송인력 증원 등 행복한 고민

[천안]천안중앙시장 온라인 쇼핑 배달 앱 '장바요'가 호응을 얻으며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천안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전통시장 배달어플 장바요 강추". "오전에 주문해서 지금 먹는데 완전 끝맛. 너무 편하고 좋네요." 등 시민들의 후기가 끊임없이 올라와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천안중앙시장 점포 60여개가 참여하는 온라인쇼핑 배달앱 '장바요'는 배달인력 3명과 장보는 인력 2명이 배송 차량 3대를 이용해 천안지역 10km 이내까지 하루 3회 먹거리, 반찬, 정육, 수산, 야채, 식료품, 과일 등을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운영업체 쇼핑바스켓은 평일에는 평균 230여건 170여 만원 이상, 주말에는 540여건 300여만원 이상의 주문이 접수되고 있다. 구매 연령은 주로 30~40대가 주를



천안중앙시장 배달앱 '장바요' 배달 차량

이르고 주문 시내 전 지역에서 주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천안중앙시장 상인회(회장 김준수)는 배달앱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배송인력을 늘리고 독특한 포장지를 제작해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천안시 제공



청양 알프스산양 목장

쉬고 싶을 땐 청양 치유여행

작지만 즐거운 여행 상품 판매

[청양]농촌진흥청 주관 '즐겁고 안전한 작은 여행, 우리 농촌 갈래?' 공모사업에 선정된 청양군이 농촌진흥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체험상품을 판매한다. 군이 제시한 작은 여행의 주제는 '한 박자 쉬고 청양으로'이다. 청정산소 흡입의 즐거움이 가득한 알프스산양목장, 계봉농원, 리코베리농장, 천장호 출렁다리를 잇는 환상코스를 1일 동안 제공하며, 비용은 1인 1코스 기준 5만원이고 판매는 9월 중순까지 계속된다. 힐링 여행을 동경하는 15인 이하 소규모 가족(친구) 단위 희망자는 농촌진흥청 연계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우리 농촌갈래?' 코너를 클릭해

'치유카페투어 한 박자 쉬고 청양'을 예약하면 되고, 관련 문의는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생활자원팀(041-940-4730)에 하면 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속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며 "농촌과 자연이 현대인의 심신 치유에 큰 도움을 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지난달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즐겁고 안전한 작은 여행, 우리 농촌 갈래?' 공모사업을 진행, 전국 지자체 27곳을 대상으로 안전성, 상품성, 참신성, 운영역량, 연계협력 능력 등을 고려해 청양군 등 9곳을 선정했다. 청양군은 심사결과 1차 1위를 차지했다. /청양군 제공

청각장애인 위한 '투명마스크'

내포 생협, 40개 제작
코로나19 소통 장벽 해소

[예산]코로나19로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서로의 입모양을 읽으며 대화하는 청각장애인에겐 장벽이 됐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충남내포아이립 생활협동조합(이사장 장선영)이 '투명마스크' 제작에 직접 나섰다. 비용을 모으기 위해 지난달에는 재활용품 바자회를 열었고, 조합기금을 더해 '청각장애이용 마스크키트' 40개를 구입해 투명마스크를 만들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보건용마스크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투명입가리개를

붙여 입모양이 보이는 형태로, 벨크로(찍찍이)로 탈부착이 가능해 일회용마

스크를 오려 다시 붙이기만 하면 재활용할 수도 있다. 장선영 이사장은 "청각장애이용 마스크가 군내에서 확산하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김수로/무한정보신문



내포생협 조합원들이 직접 만든 투명마스크를 들고 미소를 짓고 있다.

현대미술의 정수 물체의 본질을 화폭에 담다

문화사-천안 '파인아트천안21'
'비구상' 지향 전문 예술인단체
개인전 3회 이상 정예작가 모여
대상의 본질을 화폭에 담아내
"열정이 작품의 탁월함을 결정"

"예술의 핵심은 작가의 열정입니다. 탁월함이라는 지향점을 향해 꾸준히 나아가야 합니다."

'파시몽'이라는 이름으로 매년 정기전을 여는 파인아트천안21(FAC21)의 오경택 회장은 예술작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작가의 열정으로 꼽았다.

파시몽은 열정이라는 뜻을 가진 불어 '파시온(passion)'에서 따왔다. 전문 예술인단체 파인아트천안21의 정체성은 남다른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온 정신을 쏟는 작가들에게서 나온다.

오경택 회장과 정세훈, 오근표 작가 등 창립멤버들은 미술인들이 점차 늘어나는 상황 속에서 수준 높은 전시를 기획하고자 2010년 파인아트천안21을 구성했다. 주로 천안 등 충청권을 연고로 하며,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개인전 경험이 3~5회 이상 되는 출중한 작가들을 모집했다.

창립 10주년을 맞은 올해 원년멤버에 김도희·김지영·박명숙·박지은·박효연·윤선영·윤선희·이영하·이현용·이혜정 작가 등 총 13명의 작가들이 활동 중이다.

오 회장은 "소수정예로 모인 작가들이 파인아트천안21과 각자 개인전을 병행하며 역량을 꾸준히 키워간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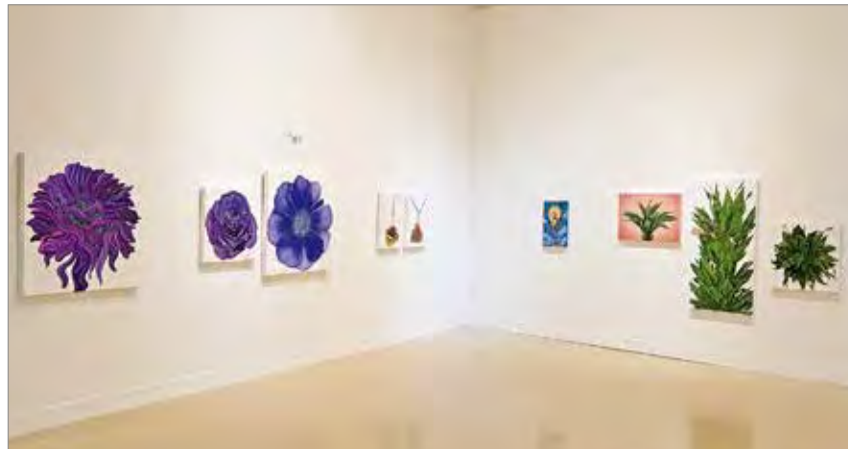
이들은 트렌디한 현대미술그룹을 지향한다. 이를 위해 대상의 정확한

형태를 그려내는 기존 전통 구상미술과 차별화된 개념을 도입해 대상의 물성, 즉 본질을 화폭에 담는 비구상미술을 구현한다.

오경택 회장은 "꼭 정확하게 그린 작품뿐만 아니라 단순한 색과 선에서도 감동을 느낄 수 있다"며 "아름다움의 표현이 다양해지며 물체의 형태보다 본질과 정신에 가치를 두는 성향이 현대미술의 한 부분을 담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천안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파시몽전에서는 개인전 형식으로 저마다 5~10점의 작품을 선보였으며 저명한 작가들 초청, 알찬 구성으로 호평을 받기도 했다.

오 회장은 "트렌디를 추구하는 만큼 젊은 층들이 주로 전시회를 찾는다"며 "미술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늘어나며 파인아트천안21도 함께 성장해왔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금의 회화 중심 전시에서 조각, 민



'파인아트천안21'은 매년 파시몽 展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전시회 내부 모습.

화, 공예, 디자인 등 분야로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파인아트천안21은 그림의 규모를 대폭 키운 대작 전시를 기획 중이다. 작가들의 출중한 역량을 확연하게 드러낼 수 있는 환경을 마련코자 한다. 꼭 미술관이 아니라도 길거리, 도로 등 관람객들을 직접 찾아가는 전시도 꿈꾸고 있다.

오경택 회장은 "지역에서 꾸준한 전시활동을 통해 예술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고 싶다"며 "파인아트천안21이 바라보는 '완벽함'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재현 scottju@korea.kr



오경택작 '꽃이 피네, 꽃이 지네' (86cm×92cm oil on canvas, 2019)

“한국서원 우수성 전 세계에 알리겠다”

김선의 돈암서원 원장 취임
발전기금 1000만 원 기탁도

“가장 활발한 서원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김선의(사진) 돈암서원 신임 원장은 취임식에서 이같은 포부를 밝혔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돈암서원 김 원장 취임식은 지난 7월 11일

돈암서원 응도당에서 이찬주 논산시 유럽협의회회장 등 관내 유럽과 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김선의의 원장 취임사, 이찬주 논산시 유럽협의회회장 축사, 전임 원장에 대한 감사패 수여, 유네스코 등재에 기여한 논산시청 박종서 주무관·한태일 학예연구사에 대한 감사패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김선의의 원장은 취임사에서 “지난해



돈암서원을 포함한 국내 9개 서원이 아제르바이잔의 수도 바쿠에서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됐다”며 “이제 중책을 맡은 만큼 전국 서원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김 원장은 이어 “지역 어르신들의 조언을 토대로 한국서원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철세/계룡일보사

이서수 작가, 황산별청년문학상 수상

【논산】이서수 작가가 황산별청년문학상 수상자에 선정됐다.

논산시는 지난 7월 15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6회 황산별청년 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서수 작가는 장편소설 ‘당신의 4분 33초’를 집필, 이날 황산별청년문학상 6년 째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신의 4분 33초’는 주인공이 숨진 아버지의 소설을 자신의 이름으로 공모전에 보내 당선돼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공모된 160편의 작품 중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랐으며, 심사위원들의 논의 끝에 ‘당신의 4분 33초’를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류보선 심사위원은 “본질적인 문제를 가벼우면서도 무겁게, 무거우면서도 가볍게 다루는 능수능란함이 돋보였다”며 “앞으로 한국문학을 한 단계 비약시킬 중요한 자산이 되기



이서수(오른쪽) 작가는 지난 7월 15일 논산시청에서 ‘제6회 황산별청년 문학상’을 수상했다.

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논산시는 이서수 작가에게 논산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 시민의 문학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인문학 도시로 도약하는 논산과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논산시 제공

‘태안의 나태주’ 안면고 정호준 교사

월간 시사문단 통해 시인 등단
“제자들 자극 주려 등단 도전”

시를 읽기 좋아하는 어머니를 위해 시집을 내겠다는 꿈이 이뤄졌다. 시인 정호준(45·사진)은 월간 시사문단을 통해 등단했고 첫 시집 ‘사랑했나요’

를 출간했다. 안면고등학교에서 국어문학을 가르친다.

그는 ‘풀꽃’의 나태주 시인의 권유로 용기를 얻어 등단의 꿈을 이뤘다. 나태주 시인은 지난해 안면고를 찾아 인문학 특강을 가졌는데, 당시 이뤄졌던 만남이 정 시인의 등단계기가 됐다.



정 교사는 “지난해 나태주 시인이 우리 학교에 와서 등단하라고 권유했고 용기를 얻었다”며 “제자들 중에 글 잘쓰는 학생들이 많지만 문예창작과 나와서 활동하는 제자들이 없어 자극을 주려고 시를 썼다. 제자들의 등단과 출판에 도움을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민령/주간태안신문



사서들의 서재



(윤성원/모요사)

우리가 몰랐던 보석의 역사

보석은 화려하게 빛나며 남녀노소 누구나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드는 오묘한 매력을 가지고 있다. 현대에서 보석은 주로 외모를 돋보이게 하는 장신구로 애용되고 있는데, 과거를 살펴보면 보석은 왕권 강화와 권력의 정당성을 상징하는 정치권력의 과시 수단이었다고 한다.

‘세계를 움직인 돌’은 고대 이집트에서부터 러시아 혁명에 이르기까지의 약 2000년간의 세계사 속에서 보석과 관련해 일어났던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들을 모은 책이다.

책의 저자이자 주얼리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윤성원은 주얼리

리의 보석학적 정보·역사·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는 주얼리 전문가이자, 한양대학교 공학대학원 보석학 전공 겸임교수다.

그녀는 ‘잇 주얼리’, ‘보석, 세상을 유혹하다’, ‘나만의 주얼리 쇼핑법’ 등 보석 관련 책 출간과 칼럼, 전시 활동, 강연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보석을 대중에게 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이 책은 진주·사파이어·루비·다이아몬드·에메랄드·터키석·오팔·비취 등 다양한 보석과 관련된 역사 속에 피소드를 20장에 걸쳐 소개하고 있다. 클레오파트라, 엘리자베스 1세,

마리 앙투아네트, 나폴레옹, 서태후 등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들의 보석과 관련된 권력 쟁탈의 역사를 따라가다 보면, 보석이 단순히 아름다운 돌이 아닌 시대의 전환점으로 역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자는 보석의 구성요소, 빛깔 등의 기본적인 특징과 세공법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역사 속 사건들을 당대의 인물화, 보석 관련 사진자료, 소설, 영화 등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함으로써 보석 자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보석과 함께 흘러간 역사를 어렵지 않고 흥미롭게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각 장의 도입부에서 저자가 실제 보석을 마주하고 만져봤을 때의 벅찼던 감정이나, 대중에게 잘

알려진 보석 관련 전설(저주) 등을 소개하며 독자에게 궁금증을 유발하고 이야기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세계를 움직인 돌’을 통해 보석의 미적 아름다움과 더불어 보석에 얽힌 다양한 인물들의 사랑과 배신, 탐욕과 희생의 역사를 간접 체험함으로써,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수많은 인간관계와 복잡한 정치권력의 흐름을 살피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윤성원
충남도서관 사서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그린뉴딜 선도할 충남전략 마련하라”

기획경제위원회

충남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위원장 안장현)는 경제실과 미래산업국, 공보관, 충남도립대학교 소관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먼저 안장현 위원장(아산4)은 “저탄소, 분산형 에너지 정책, 그린팩토리 등 그린뉴딜의 핵심내용이 도의 추진방향과 궤를 같이 하는 만큼 선제적으로 미래산업을 이끌어 갈 충남만의 전략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이공휘 의원(천안4)은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등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외국인 투자유치의 효과는 최대화하면서

도 기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자립능력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선영 의원은 “충남은 축산업이 발달한 만큼 가축분뇨를 활용한 바이오에너지도 그린에너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발전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은 “내포신도시 내 쓰레기 자동집하시설이 이용률이 저조해 흥성군과 예산군이 차량과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어 “현재 교통신호 체계가 혼잡하지 않을 때도 불필요하게 차를 세워야 하는 방식인데 편리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감응식·터치식 교통신호기를 도입해 달라”고 제안했다.

조승만 의원(홍성1)은 “내포집 단에너지 시설 추진에 아직도 반대하는 의견이 있는 만큼 소수라 할지라도 꾸준히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달라”면서 “내포신도시 입주 계약 후 아직까지 미착공한 필지가 많은데 경제가 어려워 그런 것은 아닌지 실태조사를 통해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윤철상 의원(천안5)은 “전국적으로 컨벤션센터가 확대되고 있지만 준비가 미흡하면 운영 적자를 면치 못할 수 있다”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전시규모를 산정하고 도민을 위한 복합문화시설로 기능을 확대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수익성을 최대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길연 의원(부여)은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



에 있어 여전히 도내 시군간 불균형이 존재한다”며 “낙후된 지역과 취약계층이 우선적으로 에너지보급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에너지정책의 선결조건이고 복지 충남의 실현방안일 것”이라고 역설했다.

체육계 폭행 등 방지대책 당부

행정문화위원회

충남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정병기)는 지난 7월 20일 열린 제323회 임시회 4차 회의에서 충남체육회, 충남장애인체육회, 백제문화재단 등 4개 기관의 202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의원들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 생활체육 활성화 등 도정 현안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옥수 부위원장은 “충남체육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유망한 선수들이 타지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와 함께 “코치 및 선수들 간 폭행 및 폭언 등이 발생하

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더불어 문제 발생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기영 의원(예산2)은 “최근 일부 체육회장 선발 과정에서 갈등요소 발생 등 체육회 임면에 관해 행정·조직적으로 잡음이 많았다”며 “우수 선수 발굴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체육회 임직원을 잘 관리해 체육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연 의원(천안7)은 “운동생리학적 측정으로 경기력 수준 예측과 선수별 트레이닝을 통해 선수 실력을 최상으로 만들 수 있도록 스포츠과학센터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고령화 시대를 맞이해 도민들이 100세 건강의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국민체력인증센터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형도 의원(논산2)은 “2030년 하계 아시안게임 충청권 공동유치가 무산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충청권 공동유치를 결의한 만큼 4개 시도가 적극적인 협력으로 대회 유치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영우 의원(보령2)은 “어르신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걷주’라는 앱을 모든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방법 간소화와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체육분야 담당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도민들이 건강하게 삶을 영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정병기 위원장(천안3)은 “도민의 건강한 삶을



영유하고 충남의 문화유산의 보존을 위해 각 기관에서는 최선을 다해 달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계룡군문화엑스포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더욱 박차를 가해 달라”고 말했다.

포스트코로나 발맞춘 정책 수립 주문

복지환경위원회

제11대 충남도의회 후반기에 신설된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오인환)가 지난 7월 16일 첫 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복합위는 이날 기후환경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올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발맞춘 다양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오인환 위원장(논산1)은 “전례없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연초에 세웠던 업무 계획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며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응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영란 부위원장은 “도민 모두가 환경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회용품이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층이 효과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동일 의원(공주1)은 “생활쓰레기 재활용률이 52%로 집계됐는데 명확한 통계 경로를 파악해야 한다”며 “중소도시 재활용률이 떨어지고 자원순환센터에 재활용 자원이 들어와도 그 중 재활용률이 약 30%에 불과한 만큼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도내 군 비행장과 사격장 주변 주민들이 소음피해를 입고 있으니 군소 음법 관련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 대책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보령을 비롯한 도내 화력발전

소 주변 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대책도 신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여운영 의원(아산2)은 “현재 진행중은 상수도 보급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관 교체 등을 통해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가장 우선시돼야 한다”며 “현재 충남의 누수율(15.3%)을 전국 평균(10.5%) 이하로 낮출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영신 의원(천안2)은 “코로나19 여파로 도민들이 비대면 사회 활동을 추구하다보니 일회용품 사용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용품 사용근절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1회용품 재활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은 “도내 삼교, 석문, 대호호 등 방조제가 농·공업용수로 사용되고 있으나



수질 오염과 악화로 수생태계가 파괴돼 있다”며 “방조제 주변에서 장어 등 회귀성 어종의 치어 방류사업을 하는 어민들이 높은 폐사율로 어려움을 겪는 만큼 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한 개선 대책을 제시해 달라”고 말했다.

‘어업인 소득 향상’ 정책 수립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위원장 김영권)는 어업인 소득이 감소하는 현실을 반영한 어업인 소득 향상 정책을 주문했다.

김영권 위원장(아산1)은 “국가기관 어업 데이터를 활용해 해양수산국에서 어업인을 위해 어떤 사업을 할지 고민해야 하고 수산인을 위한 소득 향상을 고려 학교급식에 충남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달라”고 제안했다.

김명숙 의원(청양)은 “해양수산국의 연구용역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6년간 40여 건의 용역을 수행하면서 예산 52억 3000여만 원을 사용했는데 이 용역결과는 지식상품으로 반드시 충남

도 사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 과업지시서와 산출내역을 확인해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며 “연구용역을 위한 해양수산국이 아닌만큼 꼭 필요한 연구용역만 시행하고 정책에 적용하여 어업인 소득향상에 힘써 달라”고 질타했다.

김기서 부위원장(부여1)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연택트 사회를 겪으면서 농림축산국의 경우 온라인 직거래 장터인 농사랑의 매출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며 “충남은 감이 주력 수산물인 만큼 흡소핀 등 온라인마켓에 주도적으로 홍보해서 향후 우량 김 생산지원뿐만 아니라 마케팅과 판매에도 지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득음 의원(천안1)은 “국가기관사업으로서 항

만 SOC 중요성과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과도한 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SOC는 공사비용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보수비가 고정비로 투입되는 만큼 후대에도 부담이 된다. 앞으로는 전시성 공사대신 어민들의 실질적 소득향상을 위한 인적인프라 중심의 투자를 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광섭 의원(태안2)은 “최근 염해, 간척지, 폐염전에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소 설치로 인근주민과 좋은 주거환경을 찾아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이 태양광 패널만 바라볼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었지만 인근주민이나 귀어귀촌하는 사람들의 삶을 고려한 정책적 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승재 의원(서산1)은 “어촌 뉴딜 300 사업 3차



공모가 진행 중인데 이 사업추진에 무엇보다 지역 주민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다”며 “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낭반하지 않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지인지 시군 현장자문 지원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제323회 임시회 업무보고 청취

‘폭염·코로나19’ 도민 안전대책 주문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이계양)는 지난 7월 15일 재난안전실과 소방본부 소관 2020년 주요업무보고에서 폭염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중호우 등 재난 발생시 맞춤형 대책 추진으로 도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 예방 대책을 주문했다.

이날 지정근 부위원장(천안9)은 코로나19와 재난 예방에 고생하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내 화

장실 등 안심벨 설치운영 표준화로 도민 안전 확보에 기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정부의 한국형 뉴딜사업과 관련해 선제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복만 의원(금산2)은 “지방하천의 퇴적도와 풀, 나무 제거 등 실질적인 유지관리로 집중호우 시 피해 예방에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대영 의원(계룡)은 “재난안전실 업무가 중요한 만큼 현재 결원인 직급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관

련 “카시트 보급 시 양질의 제품을 보급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제품 개선과 대상 확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익현 의원(서천1)은 “지역안전지수 평가 결과 우리 도가 저조한 상황”이라며 “특히 자살률도 전국 5위를 차지하는 만큼 개선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역설했다.

최훈 의원(공주2)은 안전문화 확산과 관련해 “공주시의 국제안전도시 추진에 따른 도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방하천의 국가하천 승격에도 팔 걷고 나서 달라”고 말했다.

이계양 위원장은 코로나19 및 폭염 예방에 애쓰는 직원들을 격려하며 도민 안전과 재산 보호



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환경변화 신속 대응 요구

교육위원회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조철기)는 제323회 임시회 기간 충남도교육청 및 직속기관,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각 분야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교육위는 지난 7월 15~16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살피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달라진 교육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교육질서 확립과 운영방법의 전환 등을 위한 혁신적 연구와 노력을 다 해줄 것을 요구했다.

조철기 위원장(아산3)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원활한 수업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환경변화에 따른 다양한 대응을 위해 교육공공체와 긴밀히

협력하고 도교육청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백년대계의 충남미래교육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나 의원(천안8)은 학교운동부 폭력문제·햄버거 병·영양교육체험관 설립·장애인리프트 설치 등 최근 현안 및 이슈에 따른 충남도교육청의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영양교육체험관 설립과 관련 “충남도 광역역격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해 코로나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는 교육제정의 효율성을 높여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석근 의원(금산1)은 서산 중·고등학교에서 학교 앞 CCTV를 통합관리시스템 운영을 언급하며 “학교 앞 안전사고와 학교폭력 등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도내 모든 학교에 학교

앞 CCTV 확대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병국 의원(천안10)은 “무상교육이 어렵게 시행되어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될 수 있도록 재정확보와 함께 만전을 기해 달라”며 “충남도의회와 함께 협의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홍재표 의원(태안1)은 “충남 최초 ‘드라이브스루 어린이 승차차 시스템’이 태안 백화초, 태안초에 구축돼 학생들을 교통안전으로부터 보호하고 코로나19도 예방에도 선도하고 있다”며 “각급 학교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수 의원(서산2)은 “충남도내 중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고 원거리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은 필요하다”며 “남녀공학 전환을 통해 남녀 학생이 함께 성장함으로써 다양한 교육활동과 문화 형성에 도움



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양금봉 의원(서천2)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상상이룸교육을 위해서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며 지역교육청별로 운영되는 상상이룸공작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5분발언

“내포신도시 비전 TF팀 구성” 제언



이선영 의원이 ‘내포신도시 비전 TF팀’ 구성을 제언했다. 이 의원은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설치해 각 사업들에 대해 토론·점검·연구하고 분기별로 도민과 함께하는 포럼을 구성해 활동해야 한다”며 “활동결과물을 도출해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포신도시 비전 TF팀을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노동계, 시민사회, 행정기관, 연구기관, 도내 대학, 기업들이 함께 참여하는 도지사 직속 내포신도시 비전 TF팀을 구성해 지금까지 각 사업들이 따로따로 진행되면서 기관 간 유기적으로 연계·협력하지 못한 점을 바로 잡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해 더 나은 충남 만들기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도지사 직속 민항유치 전담반 꾸려야”



김옥수 의원이 충남의 하늘길을 열기 위한 도 차원의 민항유치 노력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리 도는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어 물류 교통과 관광 활성화에 한계를 겪고 있다”며 “산업 경쟁력 강화와 국내외 관광객 접근성 제고, 도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민항유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2023년 취항할 수 있도록 도지사 직속 민항유치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중앙정부, 관계기관과 협약 등 긴밀한 협의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이 환황해권 교통·관광 중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가 적극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로 이전해야”



김명숙 의원(청양)은 “충청남도 산림자원 육성의 100년 대계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세종시에 위치한 충청남도산림자원연구소를 도내로 이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의원은 “스마트폰 검색창에 금강자연휴양림을 검색하면 세종시 대표 명소로 표기돼 있고 홈페이지도 세종시청 관광문화재과로 이동된다”면서 “이용객들이 금강자연휴양림을 과연 충남의 명소로 생각할지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관광자원은 해당 도시의 이미지 제고, 관광지 주변의 숙박, 식사 등 부가적인 수익 창출 효과가 있다”면서 “도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도내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남도가 안면도 꽃 축제장 직영해야”



정광섭 의원(태안2)이 안면도 꽃 축제장 운영방식 개선을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안면도 꽃박람회에 5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면서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행사 자체가 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며 “충남도가 꽃 축제장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안면도 꽃 축제장 한 달 운영비만 1억 5000만 원에 이른다”며 “영농조합이 꽃지해안공원을 운영하는 것은 힘든 일”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충남개발공사가 영농조합법인과 함께 합자 또는 전부 인수해 운영·관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섬마을 화재 예방장비 확충 시급”



이영우 의원(보령2)은 “내륙에 비해 화재로부터 취약한 유인 도서 지역에서 화재발생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장비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33개 유인도서 중 화재진화차량이 보급된 지역은 보령 원산도와 삼시도, 고대도, 장고도, 효자도와 당진 대난지도 등 6곳 뿐”이라며 “국내외 관광객 증가 등 지역 여건 변화에 발맞춰 100명 이상 거주 중인 유인 도서에 소방장비차량 보급과 전담의용소방대 설치 등 안전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차고지가 없는 곳은 초기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물적 피해 발생 예방을 위해 차고지를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사고 종합대책 마련 촉구



이계양 의원은 도내 교통사고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안전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에게 따르면 지난해 도내 교통사고 건수는 940건, 사망자 수는 30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가 14명꼴로, 전국 평균(6.5명)보다 두 배 이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5.2명)의 세 배에 근접한 수치다.

이 의원은 “도내 5등급 평가를 받은 지역에 대해선 관리대책이 절실하다”며 “과속방지턱과 과속카메라 등 교통안전시설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안전한 충남을 만들기 위해 정밀 실태조사를 통한 강화된 교통사고 종합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촉구



방한일 의원(예산1)이 새롭게 만들어질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강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방 의원은 “충남인으로서 단결심을 불러일으키고 도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활성화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 의원은 “과거 도내 기관·단체장 앞에서 충남찬가를 부르는 등 홍보에 앞장선 결과 도민체전 행사에서 참석자 다섯 중 네 명이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널리 퍼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민의 노래는 많은 사람이 함께 즐겨 부를 수 있어야 한다”며 충남도민의 노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보령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절실”



김한태 의원(보령1)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지역인 보령지역에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보령1·2호기는 예정보다 2년 앞당긴 올 연말, 보령5·6호기는 2025년까지 문을 닫을 예정”이라며 “환경문제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런 폐쇄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등을 고려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령시민들은 지난 35년 간 건강의 위협까지 감수해 왔다”며 “보령시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비롯해 지역내 산단에 국내외 기업유치, 공공기관 이전 등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구했다.



“행정수도 이전 마당” ·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충남 땅”

청와대·국회·공공기관 이전으로
‘행정수도 세종시’ 완성 요구
“당진·평택항 관할권 충남에”
지방자치법 조속 개정 촉구

충남도의회가 행정수도 이전과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의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도의회는 국가균형발전·경쟁력 강화와 지방정부 자치권 실현을 위해 모은 뜻을 정부, 의회, 대법원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는 24일 제32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수도 이전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

다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청와대와 국회를 조속히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고, 이를 위한 헌법 개헌의 조속한 통과와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또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려는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는 내용도 결의안에 담았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오인환 의원(논산1)은 “국토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지난해 말 전체의 50%를 초과했다”며 “이처럼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는 최근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비롯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일명 ‘리쇼어링’ 시

수도권 우선 배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60년대부터 서울에 집중된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헌법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와 국회는 물론 아직 수도권에 남아있는 공공기관도 모두 지방으로 이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날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충청남도 귀속 결정 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

홍기후 의원(당진1)이 대표발의한 이 결의안은 당진·평택항 공유수면 매립지 관할이 충남도와 당진시에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이번 분쟁의 불씨가 된 지방자치법의 조속한 개정을 요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는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행정관습법으로 인정해 서부두 제방 3만 2834.8㎡를 당진 관할로 인정했다. 그러나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이후 당시 행정자치부(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매립지 관할 결정권이 주어졌고, 2015년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서해대교를 기준으로 일부를 제외한 매립지 71%를 경기도 평택시 관할로 귀속시켰다.

충남도와 당진·아산시는 이 결정에 즉각 반박해 대법원에 결정취소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현재에 관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나, 최근 현재는 소관 밖이라며 ‘각하’ 결정을 선고한 바 있다.

홍 의원은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오랫동안 충남의 관할구역으로 관리해 왔고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기반시설 대부분을 당진시와 아산시가 제공하며 실효적 자치권을 행사해 왔다”며 “매립지와 당진시를 연결하는 ‘신평-내항 간 연결도로’가 개통되면 지리적 연결성은 당진이 더욱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법원은 헌법에 보장된 자치권 보장을 위한 정의로운 판단을 촉구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지방정부의 완전한 자치권 실현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두 결의안을 각각 정부, 국회의장, 각 정당대표 등과 관련 부처, 대법원에 전달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김명선 의장이 지난 7월 22일 112회 회의실에서 하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소통·실천·행복’... 하반기 의회 운영방향 제시

사전협의제·정책점검시스템 등
도·교육청과 견제·협력체계 강화
도정토론회·정책 제안제도 등
도민 참여·의견 수렴 확대 방침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지난 7월 22일 112회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대 하반기 의회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김명선 의장은 “하반기 의회는 도민과 함께하는 ‘소통의정’, 현장을 찾아가는 ‘실천의정’, 도민이 더 행복한 ‘행복의정’을 목표로 전반기 쌓아올린 토대 위에 성과를 창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반환점을 돈 도정과 교육행정

이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견제와 협력 체계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다.

우선 도의 주요 투자사업 또는 도민 관심도가 높은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행 전부터 집행부와 소관 상임위원회 간 사전 간담회를 여는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의원이 제안한 정책 추진상황을 비롯해 도 추진사업의 정상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정책 정기점검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하반기 청사 공간 재구성 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입법담당 및 정책연구원을 대상으로 도와 시군 합동 연찬회 등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도민의 대의기관에 걸맞게 도민과 소통의 기회를 더욱 확대한다.

이를 위해 정책 수혜자인 도민과 함께

도정 예산을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한 ‘도정실질 토론회’를 내년에 개최하기로 했다.

도민과 도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할 예정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발맞춰 참석 인원은 최소화하되 페이스북, 유튜브 등 도의회 누리소통망(SNS) 생중계로 도민과 직접 의견을 주고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도민으로부터 다양한 정책 제안을 수렴하기 위해 지역민원상담소와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한 ‘정책 제안제도’를 시행하는 등 온·오프라인 소통·협력 창구도 넓힌다.

이밖에 내년 전면 시행 예정인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를 준비하고 지난해 신설된 지방의원 정책개발비를 바탕으로 한 개별 입법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의회 ‘싱크탱크’인 정책위원회 2기 위원을 새롭게 위촉한다.

김명선 의장은 “견제와 협력을 통해 집행부와 건전한 균형을 추구하고 220만 도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 ‘틀’ 만든다

14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제도 운영방안 수립·내년 전면 시행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가 현재 시행 중인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제도의 ‘틀’을 만든다. 도의회는 지난 7월 14일 112회 회의

실에서 ‘충청남도 조례 사후 입법평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 연구용역 시행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입법평가위원회 내부위원인 오인환(논산1)·이공휘(천안4)·정광섭(태안2) 의원을 비롯해 정병희 의회사무처장과 수석전문위원, 연구용역 수행기관인 충남연구원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충남연구원 김병준 책임연구원은 이 자리에서 연구용역 주요 과업으로 ▲시법평가 대상조례 25건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시행 ▲평가대상 조례 개선 방안 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 등을 소개하고 수행계획을 보고했다. 도의회는 향후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례 사후 입법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수립한 후 내년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청년농업인 돌봄체계 구축 추진

청년농업인 지역 정착 연구모임
지역 보건지소 커뮤니티케어 추진

충남도의회가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충남형 커뮤니티케어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청년농업인 지역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은 지난 7월 23일 서천지역교육청에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착수보고회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도의회 양금봉(서천2)·전익현(서천1) 의원과 서천군의회 김아진·이현호 의원, 청년농업인, 서천군보건소 김재연 소장 등 관계자 등 12명이 참석

했다. 착수보고회는 청년의 지역 유입과 이를 위한 일자리창출에 초점을 맞춰 지역 보건지소를 중심으로 위기 고령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돌봄 등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해법을 찾는 데 방점을 뒀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충남지역 의료사각지대의 의료복지 문제를 청년농업인의 일자리 마련과 함께 문제해법을 찾겠다는 복안이다.

양금봉 의원은 “지역소멸과 고령화 등으로 위기에 봉착한 충남지역 농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커뮤니티케어 운영은 청년농업인의 유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의료복지 체계를 선순환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청년농업인 지역정착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양금봉)은 지난 7월 23일 서천지역교육청에서 청년농업인이 참여하는 보건지소 중심의 커뮤니티케어 운영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민간보조금 대대적 점검 시동

민간보조금 예산 심의 시
원가산정 매뉴얼 작성 발표 등

충남도의회 ‘충청남도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7월 22일 충청남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매년 증가 중인 민간보조금의 전반적 점검을 위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대표인 이공휘 의원(천안4)을 비롯해 ‘충남의 재정투자관리 강화를 위한 연구모

임’ 구성원 20여명과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공공재정연구원이 참석했다.

이날 최두선 공공재정연구원은 “민간보조금 예산 편성·심의시 원가산정 검토 매뉴얼 작성”을 주제로 연구용역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연구용역을 통해 민간보조금의 전반적 점검이 이뤄지기 위한 심도 있는 토론을 벌였다.

이 의원은 “민간보조금 교부 내역에 대한 점검과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함으로써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